

M 45-101 | 2009. 1 |

제 101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09. 1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전문연구원 mkle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8-7340
김연수 연구원 yunsoo@krei.re.kr TEL 02-3299-4307

목 차

농업 · 농정 동향

- 3 FAO의 세계식량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IEWS) 운용현황
 - 11 농산품 품질경쟁력에 대한 EU의 고민(1)
 - 21 말레이시아 농업의 동향과 농산물 교역
- 41 한국 · 일본 · EU의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비교

국제기구 동향

- 53 DDA, 2009년 1월 농업협상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57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12)
- 6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12)
- 7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12)
- 89 세계 육류 수급 및 교역 전망

세계 농업 브리핑

- 103 세계 농업 브리핑 (2008.12)

세계농업통계

- 117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 120 국가별 농업 면적



농업·농정 동향

FAO의 세계식량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IEWS) 운용현황
농산품 품질경쟁력에 대한 EU의 고민(1)
말레이시아 농업의 동향과 농산물 교역
한국·일본·EU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비교

FAO의 세계식량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IEWS) 운용현황*

김태훈, 승준호

1. GIEWS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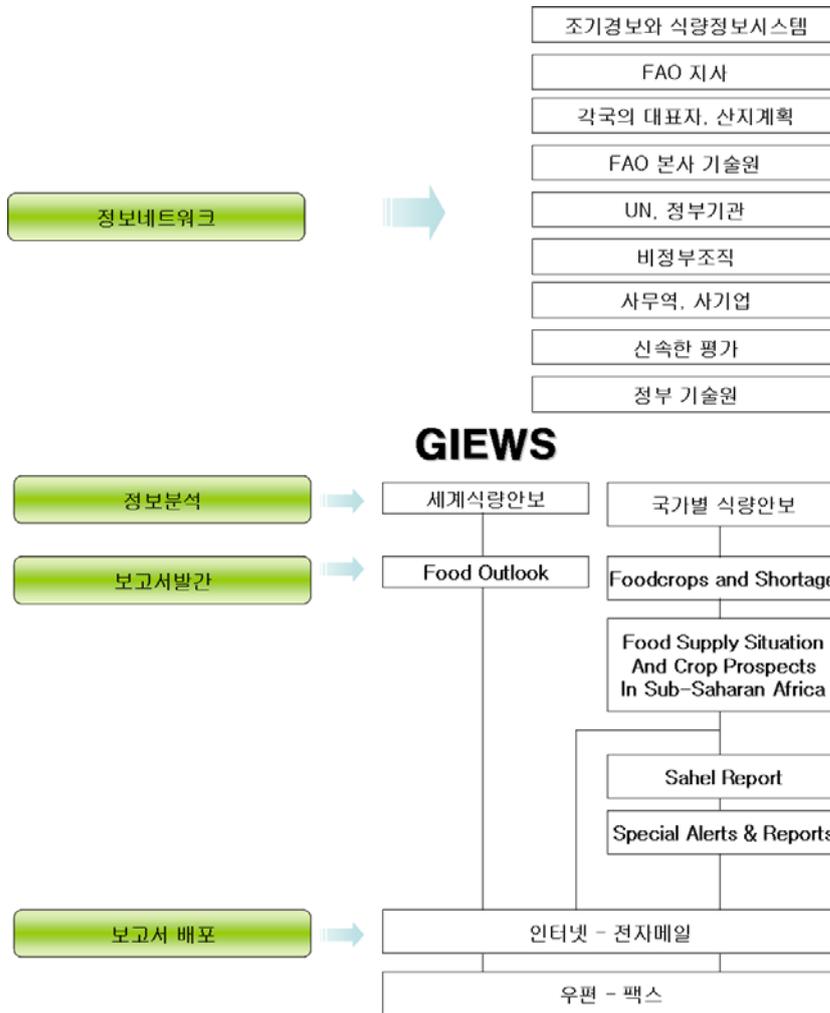
FAO의 GIEWS는 1970년대 초 세계 식량위기를 경험한 후 개발되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 제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해 국제 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팽배해지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FAO의 GIEWS(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는 1970년대 초 세계 식량위기를 경험한 후 개발되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제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GIEWS는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로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기에 경고하고 있다.

GIEWS의 목적은 정책 담당자와 정책분석가들에게 식량수급에 관한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GIEWS는 정보제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식량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세계 생산, 재고, 교역 및 식량원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GIEWS는 정기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한 신속한 평가업무를 부과하고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를 수시로 발간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정부, 국제비정부기구(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연구기관 등의 정보요청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GIEWS는 조기경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별·지역별 조기경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 내용은 FAO의 GIEWS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부연구위원, 승준호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taehun@krei.re.kr, 02-3299-4174)

그림 1 FAO의 GIEWS 체계



2. 회원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

GIEWS는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공개포럼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다양한 출처를 통해 경제, 정치, 농업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1975년에 UN 기구들, 115개 정부, 4개 지역기구, 61개 국제비정부기구(NGOs)간에 기관연계(Institutional Link)와 정보공유협정(Information-Sharing Agreement)이 수립되었다. 여기에 다수의 국제 연구기관, 뉴스 서비스, 민간기구, 특정 정부기관이 참가하게 되었다. FAO 로마본사는 참여기관들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다.

GIEWS는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공개포럼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다양한 출처를 통해 경제, 정치, 농업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FAO의 상품무역부(Commodities and Trade Division)에서 운영하는 GIEWS는 FAO 지역 및 국가 사무국, 기술원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정보공유와 방법론을 개선시킨다. 최근 FAO의 분권화는 현지로부터의 보고시스템을 강화시켰다. FAO 사무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정부기관들의 동향보고서를 수집하여 전세계에 정보를 배포한다. 한편 FAO 현지 사무국들은 GIEWS 간행물 배포에 협조하고 있다.

실시간 위성이미지와 농업기상평가(Agrometeorological Assessment)를 제공하는 FAO의 환경자원국(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ervice)은 GIEWS의 식량모니터링(Crop Monitoring)을 담당한다. 위성이미지는 FAO의 실시간아프리카환경관측정보시스템(ARTEMIS: Africa Real Time Environmental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제공되며 농업기상평가는 농업기상그룹(Agrometeorology Group)에 수행된다. FAO의 비상센터(ECLO: Emergency Centre for Locust Operations)와 경계를 초월한 동식물 질병(Transboundary Animal and Plant Pests and Diseases)의 비상예방시스템(Emergency Prevention System)은 이동성해충(Migratory Pest)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GIEWS는 FAO의 상품무역부 소속 품목전문가들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분석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국가별 조기경보 및 식량정보시스템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식량안보·농업사업분석국(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Projects Analysis Service)과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한편 GIEWS는 비상시 기관들의 반응을 체계화하는 FAO의 비상조정그룹(ECG: Emergency Coordination Group)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FAO의 식품영양부(Food and Nutrition Division), 특별구제국(Special Relief Operations Service), 정책조정국(Policy Coordinating Service)과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GIEWS는 해당 국가들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응여건에 관한 정성적인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FAO 회원국들과 일부 비회원국들이 GIEWS의 주요 대상인데 GIEWS는 식량위기 발생가능한 지역과 국가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를 범주로 하고 있다.

식량원조국과 관련기관들은 GIEWS의 주 수요자이자 시스템 개선과 정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국가 및 기관들은 GIEWS를 개선·발전 시켜오는데 일조해 왔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는 위기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와 GIEWS에 적합한 전산화시스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본은 취약한 아시아지역의 분석에 대한 지원을 하며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로 구성된 정보 확산에 기여해 왔다. 미국의 경우 코소보와 유고슬라비아의 모니터링 강화를 지원해 왔다. GIEWS는 정보 및 소프트웨어 공유를 위해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기근조기경보시스템(FEWS: Famine Early Warning System),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의 공동연구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정기적인 협조회의, 공동업무, 비공

대부분의 FAO 회원국들과 일부 비회원국들이 GIEWS의 주요 대상인데 GIEWS는 식량위기 발생가능한 지역과 국가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를 범주로 하고 있다.

식 또는 공식적 교류를 통하여 GIEWS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IEWS는 세계식량계획(WFP)의 계획과정에 정보제공을 하고, WFP는 주간현지보고와 기타 식량위기에 관한 정보를 GIEWS에 지원한다.

GIEWS는 UN의 주요 위기조정기구인 인권조정실(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UN 인권조정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식량부족과 식량모니터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GIEWS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도 협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의 식량위기로 인하여 식량공급평가업무(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s)에 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난민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기상데이터를 지원한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부터 실업과 빈곤수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국제곡물이사회는 국제시장, 수출가격, 운임률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OECD, World Bank, IMF 등 다수의 UN기구들과 국제기구들이 GIEWS와 연계되어 있다.

GIEWS는 정보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인 국제비정부기구(NGO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식량정보와 조기경보에 관한 정보 수집 시, 특히 지역수준(Sub-national Level)에서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NGO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NGOs는 정부정보기관들이 내전 상태인 국가들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모니터링

20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GIEWS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식량생산, 교역, 식량원조, 재고, 소비,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를 분석, 업데이트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재원으로 GIEWS는 데이터관리, 조기경보 분석을 위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최신 위성 이미지를 모니터링하고 식량수입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GIEWS는 전세계 식량작물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GIEWS는 먼저 생육중인 작물(Standing Crop)의 생산량 추정치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수집하고 분류한다. GIEWS는 재배면적과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와 같은 건조국가들(Drought Prone Countries)은 기상과 식량 상황에 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GIEWS는 FAO의 아프리카환경관측정보시스템(ARTEMIS: Africa Real Time Environmental

2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GIEWS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식량생산, 교역, 식량원조, 재고, 소비,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를 분석,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림 2 강우량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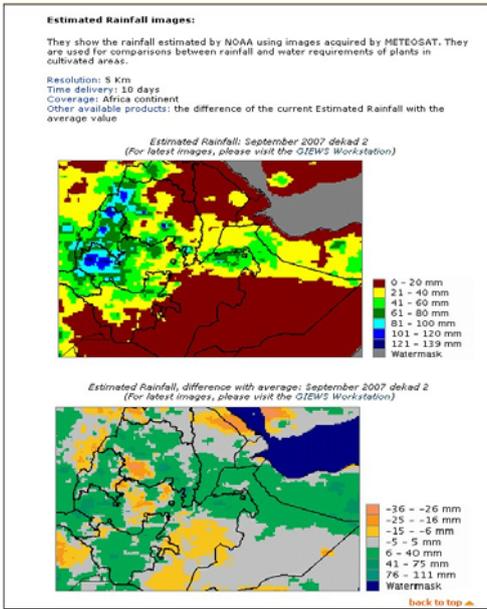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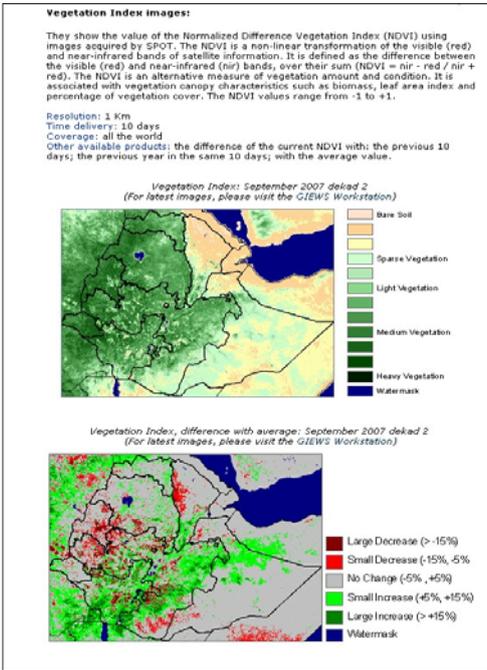


그림 3 식생이미지(Vegetation Image)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과 연계하여 실시간 위성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식량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AO의 ARTEMIS는 유럽의 기상위성인 METEOSAT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고 이 데이터는 10일 주기로 아프리카의 저운성구름존속(CCD: Cold Cloud Duration)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CCD 이미지는 저운성구름(Cold Cloud)이 강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강우(량)의 대리 지표로 사용된다. ARTEMIS는 CCD이미지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GIEWS 분석가들은 현재와 과거의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가뭄과 강우량이 적은 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일본의 GMS 위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동남아시아의 강우량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GIEWS는 강우량 모니터링 이외에 식생지수(NDVI: Normalis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이미지를 추가하여 분석가들이 작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극궤도 위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NASA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서 가공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의 식생(Vegetation) 이미지를 제공한다. ARTEMIS는 1981년부터의 이미지 자료를 보존하고 있어 분석가들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식생여건(Vegetation Conditions)을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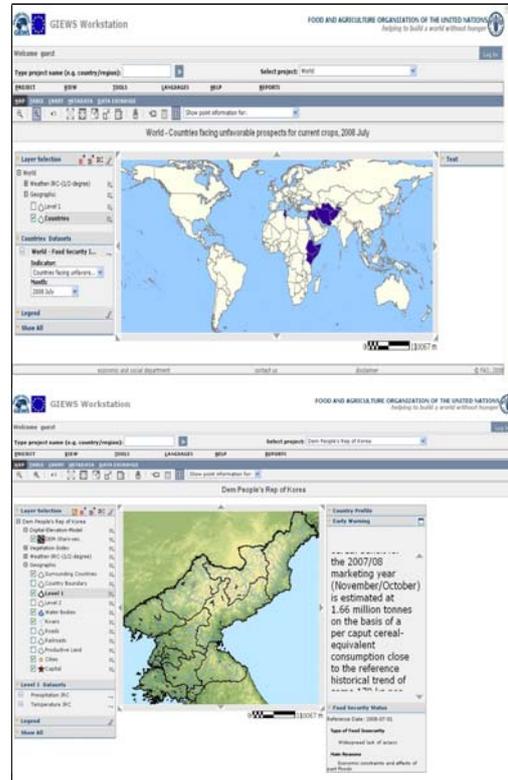
GIEWS의 식량안보 모니터링 활동은 전세계(Global Level), 권역별(Regional Level), 국가별(National Level), 지역별(Sub-national Level)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계적 수준(Global Level)에서는 국가별 정보를 수집하여 세계 식량수급을 추정하고 국제시장 수출가격을 일별, 주별 데이터로 수집하며 주요 국제곡물 교역에 관한 자료를, 국가별·권역별 수준(National and Regional Level)의 경우 국가별 식량 생산, 재고, 교역,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GIEWS는 식량수급 문제가 있는 국가, 대량의 식량원조가 필요한 국가, 식량과잉 국가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국가적 수준의 모니터링 한계를 지적하는 학계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별 식량안보(Sub-national Food Secur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워크스테이션

GIEWS는 수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EU집행위원회의 재원과 지원을 통해 'GIEWS Workstation'으로 알려진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워크스테이션은 곡물의 대차대조표, 지도식 도표와 위성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툴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스테이션은 전세계, 지역별, 국가별 수준에서의 식량안보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GIEWS 이용자들은 다양한 식량캘린더, 식량통계, 관련도표,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GIEWS 분석가들은 워크스테이션의 위성이미지 분석과 도표 오버레이 기능(Map Overlay Function)을 활용하여 주요 지역의 강우량과 식생여건(Vegetation Condition)을 평가할 수 있다. GIEWS는 데이터 표준화(Data Standardization)와 공유를 위해 워크스테이션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도표와 이미지 소프트웨어인 WinDisp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버전이 있고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GIEWS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조기경보시스템, FAO 본부 등에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GIEWS 워크스테이션



5. GIEWS 간행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은 GIEWS의 핵심부분으로서 최근 컴퓨터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은 GIEWS 보고서 발간 및 배포를 더욱 수월하게 하였다. GIEWS의 주요 간행물은 'Food Outlook', 'Foodcrops and Shortage', 'Food Supply Situation and Crop Prospects in Sub-Saharan AFRICA' 등과 다수의 경보관련 보고서(Special Alert)와 특집 보고서(Special Report)들이 있으며 FAO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년에 5회 발간되는 'Food Outlook'은 개인 및 기관에 4,600부가 배포되며, FAO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동향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전세계 곡물 생산, 재고, 교역에 관한 정보 및 기타 품목과 비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세계 곡물시장, 수출가격, 해상 운임률에 관한 분석과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특별주제로 농업부문에 대한 엘니뇨의 영향, 특별품목 시장에 대한 검토 등을 다루고 있다.

GIEWS는 국제사회에 시의적절한 경보를 하기 위하여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식량 공급과 농업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들을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Foodcrops and Shortage’는 1년에 5회 발간되며 특정국가의 식량 생산, 소비, 교역, 재고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식량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한 국가와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의 식량안보 지표들을 싣고 있다.

‘Food Supply Situation and Crop Prospects in Sub-Saharan AFRICA’는 1년에 3회 발간된다. 이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량 비상사태와 식량원조가 시급한 국가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주제를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내란, 식량원조 동향, 전염병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Sahel Report’는 6~10월까지 매월 발간되며 건조지역의 기상현황과 전염병, 식량전망을 다룬다.

GIEWS는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시의적절한 경보를 하기 위하여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식량 공급과 농업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들을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참고자료

FAO, “The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http://www.fao.org/GIEWS/english/index.htm>

농산물 품질경쟁력에 대한 EU의 고민 (1)*

최정남

2008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농산물 품질과 관련한 독서를 제작, 배포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EU의 모든 조직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지난 2008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농산물(농산물과 식품) 품질과 관련한 독서 (Green Paper)¹⁾를 제작, 배포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EU의 모든 조직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독서는 농산물 품질과 관련된 8개 주제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총 19개의 논점들을 담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업종사자, 식품생산자, 비정부조직, 가공업자, 도소매업자, 유통회사, 소비자, 공공기관들로부터 농산물 품질정책과 관련한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본 글에서는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시도된 이번 독서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함으로써 첫째,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EU의 고민과 노력을 이해하고, 둘째,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한·EU FTA 협상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EU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EU 농산물 품질 정책 개요 및 독서의 배경

개발도상국에서 저비용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들로 인해 EU의 농업인들 역시 많

* 본 내용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작, 배포한 농산물 품질에 대한 독서(Green Paper on Agricultural Product Quality)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남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choijn@krei.re.kr, 02-3299-4319)

1) GPA(Green Paper Approach) 제도는 투명한 정책 결정을 위해 회의록, 관련 자료 등 정책 입안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EU의 경우 지난 8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독서(Green Paper)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책이 결정된 후 보다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행정의 전문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은 압력을 받고 있다. 농업분야의 기본 생산물은 물론 가공 제품 분야에서도 이러한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품질’이다.

일반적으로 EU 농산품의 ‘품질’은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EU 규정에 따라 식품 사슬에서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농산품 품질은 안전성 측면 외에도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고려될 수 있다.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생산자가 더 알리고 싶고, 소비자들이 더 알기를 원하는 영농방식이나, 원산지 등의 특징 역시 품질과 관련있는 측면이다.²⁾

시장과 사회의 요구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지닌 식품을 원한다. 그러나 가격과는 별도로 소비자 및 상인들은 구매할 제품의 가치 및 품질에 대해 또 다른 요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가 오늘날 EU 농업인들이 직면해 있는 커다란 도전인 것이다.

EU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위생과 식품안전, 건강,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요구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생물학적 다양성, 동물보호 및 물 부족 등에 대한 농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업은 토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까닭에 지역의 공간적 발전이나 경관, 가치있는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s)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가용소득을 증대시켜가는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요구 역시 주목해야 할 주요 대상 중 하나이다. 그들은 식품이 맛도 있고, 전통도 보유하고, 출처도 분명하고,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엄수한 식품이기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농업인들은 이러한 것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공급하고 시장에서 그들의 상품을 분명히 차별화시키고,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EU 농업정책은 이와 같은 품질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EU는 많은 규정과 규칙들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및 규칙들은 본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생산기본요건(Baseline)정책과 품질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저비용으로 생산되는 농산품들로 인해 EU의 농업인들 역시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품질’이다.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2) 이번 녹색에서 식품안전성이나 영양소 표기, 동물보호 등 다른 EU 정책에 의해 다루지고 있는 품질문제는 제외되었다.

생산기본요건

EU의 규정들은 농산품 안전, 위생, 신원(Identity), 구성성분, 환경적 고려, 동식물의 건강, 동물복지 등의 범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엄격한 농업생산의 기본요건들을 담고 있다.

품질생색 및 품질 관련 규정

EU 내의 대다수 농업인들은 새로운 판로를 창출하고,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롭고, 유일한 방식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녹서를 통해 현 정책의 적합성, 정책의 발전방도 및 새로운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하였다.

- 맛, 원산지 등과 같은 특성이나 생산방식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능가하는 프리미엄 상품의 생산 및 제공
- EU의 품질 규정 및 생산자가 프리미엄 상품에서 내세운 가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
- 우수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비용 지불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
- 상품의 명성 또는 특성이 지역 생산자들의 노하우(Savoir-Faire) 및 생산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Chablis', 'Prosciutto di Parma', 'Scotch whisky', 'Café de Colombia', 'Sitia Lasithiou Kritis', 'Szegedi szalámi', 'Queso Manchego', 'Nürnberger Lebkuchen'처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를 통한 식품, 와인 및 증류주의 명칭 보호
- 소비자들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대에 따른 유기농업 규정 강화
- 전통식품 및 음료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EU규정에 의거, 전통적인 특산품의 명칭 등록
- EU 최변방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에 대한 판매 지원
- 우수한 품질을 특화시킬 목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마케팅 기준(Marketing Standards) 확립 (올리브유 경우 'extra-virgin', 과일, 채소의 경우 'Class I', 달걀의 경우 'free-range' 등)
- EU의 소비자들이 영농방식이나 생산물의 특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증활동 촉진 및 강화

녹서의 배경

농산품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 추가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녹서를 통해 현 정책의 적합성, 정책의 발전방도 및 새로운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하였다.

녹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1부는 농업생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유럽연합의 농산물 마케팅 기준을 다루고 있다. 2부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전통적특산품보증(TSG: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최변방 지역의 농산품에 대한 정책, 유기농산품에 대한 유럽연합 역내 시장 확대 등 현재의 EU 농산품 품질 정책을 다루고 있다. 녹서의 3부에서는 생산자들이 구매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상품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돕는 인증 제도를 민간단체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2. EU 농업생산 기본요건 (EU Farming Requirements)

EU 농업생산자들은 일련의 생산 요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EU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이 규정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에 출하된 최종 식료품에 적용되는 위생 및 안전 기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환경, 윤리적, 사회적 등)까지도 포함된다. EU 농업생산자들에게 있어 이 요구조건은 농약 및 비료의 선택과 사용, 동물과 식물의 질병 예방, 농업생산자들의 훈련 및 보호, 가축들에게 적절한 복지 조건 제공, 환경 보호 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에게 있어 이 요구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관심사를 포함한 기초적인 생산 요건들이 EU의 모든 농산품들에 적용되었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EU 농업생산 기본요건들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품질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농업생산자들에게는 이로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조건들이 존재하고 EU의 농산품 생산과정에서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한편 수입 농산품에 대해서 농산품 위생 및 안전성 이외의 요건들 즉, 환경, 동물복지 규정과 같은 대다수의 농업생산 기본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농 기준, 환경보호, 동물 복지 및 농업생산자들의 안전 문제 등은 영농이 행해지는 국가의 정부가 규제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EU는 수입 농산품이 위생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수 있지만, 수입 농산품과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상품 생산국의 법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게 된다.

EU 농업생산자들이 준수하는 위생이나 안전성 문제 외의 생산요건들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들 간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기본요건들이 널리 알려지고,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마케팅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관심사들은 역내시장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 선상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EU 농업생산의 기본요건들이 널리 알려지고,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마케팅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

논점 1:

- EU의 농업생산자들이 준수하는 농산품의 위생 및 안전성 조건 외의 영농요건들과 기준들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도는?
- 위생과 안전성 조건 외의 EU 생산요건들에 부합됨을 의미하는 심볼 또는 로고를 지닌 새로운 품질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그 장단점은? EU의 생산요건을 준수한 역외 생산품들도 유럽 연합의 품질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 농산품의 생산 장소 (EU/non EU)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할 경우의 장단점은?

3. EU 마케팅 기준 (Marketing Standards)

EU 마케팅 기준과 관련된 주요이슈는 의무조항 마련방도, 임의적 용어의 사용 확대 여부, 규정의 간소화 등이다.

EU 마케팅 기준은 제품들의 정의, 최소생산기준, 제품범주, 소비자들이 농산물 및 일부 가공식품³⁾들의 식별번호를 알 수 있게 하는 라벨링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이다. 마케팅 기준은 농업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고 서로 다른 품질을 지닌 제품들 간의 가격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EU의 마케팅 기준은 역내시장에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개별국가들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모든 식품들이 EU차원의 마케팅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밀, 옥수수, 콩 등 경종분야의 상품들은 공식적, 국제적, 국가적 혹은 민간적 차원에서 정립된 등급 및 분류 기준에 따라 거래된다. EU의 마케팅 기준에 포괄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제품들에는 소비자들을 혼동시키지 않기 위해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및 라벨링 규정들이 적용된다. 한편, EU 마케팅 기준의 일부 기준들은 논란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에 의거해 마케팅 기준을 개정하는 과정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녹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EU 농산물 마케팅 기준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이슈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하였다. 세 가지 이슈는 ‘EU 마케팅 기준에서 의무조항들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임의적 용어(Optional Terms)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가?’ ‘규정 작성 과정을 간략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등이다.

마케팅 기준의 의무적 요소

제품 신원 (Product Identities):

대부분의 EU 마케팅 기준들은 제품 설명에 필요한 분명하고 공통된 규칙들을 정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및 식료품들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스(Juice)’라는 용어는 과일즙이 희석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우유(milk)’라는 용어 역시 두유류(soya drinks)와 관련해 사용될 수 없다.

3) 마케팅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 쇠고기, 송아지고기, 달걀, 신선 및 가공 과일채소류, 꿀, 호프, 우유 및 유제품, 올리브유, 돈육, 가금육, 양고기, 설탕, 와인, 코코아 및 초콜릿제품, 커피 추출물 및 차커리 추출물, 과일 주스, 과일썸, 젤리 및 마멀레이드 등, 증류주, 버터, 마가린, 혼합지방.

생산 요건(Farming Requirements):

신선 과일 및 신선 채소, 가금육 등 몇몇의 경우, 마케팅 기준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결함이 없고(sound), 속임수가 없으며(fair), 팔 수 있는(marketable)’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신선 과일 및 채소가 상했거나, 손상되었거나, 더럽거나, 해충피해를 입었거나, 발육이 불충분하거나, 덜 익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에는 최저크기 조건(성숙도를 나타내는)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과일이나 채소들이 신선 제품에서 제외되어 가공용으로 사용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게 된다.

품질 및 크기 분류:

몇몇 마케팅 기준들은 등급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래 이러한 등급화 시스템은 구매자들이 제품등급과 범주별로 가격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가금 도체 및 지육들은 외형에 대한 기술적 묘사, 도체 형태, 도체 손상정도(damage to the carcass) 등과 같은 품질기준에 따라 CLASS A 나 CLASS B로 분류되어야 한다. 달걀의 경우 그 크기에 따라 ‘XL’, ‘L’, ‘M’, ‘S’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사육방법에 따라 ‘cage’, ‘barn’, ‘free-range’ 또는 ‘organic’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몇몇 과일과 채소류들도 ‘Extra’, ‘Class I’, ‘Class II’로 등급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판매용으로 출하되기 전에 이미 등급화되어야 한다.

마케팅 기준의 의무적 조항들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이러한 규정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지, 관리행정비용은 균형 잡혀 있는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혁신적이고 특이한 제품들의 유통이 방해받거나 식용될 수 있는 생산물이 폐기되는 등 뜻하지 않은 결과들이 생겨나는지 등이다.

의무적 조항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의무적 규정의 필요성, 관리행정비용의 균형성, 의무적 규정에 의한 부작용 등이다.

논점 2:

- EU법률에 의거, 마케팅 기준을 통해 제품신원을 규정하는 것이 소비자, 상인 및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장단점은 무엇인가?
- 위생 및 안전성 조건은 충족하나 미학적인 혹은 그와 유사한 이유로 마케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들에 대해 소매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만약 허용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별도의 소비자정보가 필요한가?
- 의무적인 품질 및 규격의 등급화를 ‘임의적 예약용어(Optional Reserved Terms)’처럼 임의화할 수는 없는가? (아래 문단 참조)

몇몇 분야에서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영농 용어(Farming Terms)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마케팅 기준 내의 예약용어⁴⁾(Reserved Terms)

‘임의적 예약용어(Optional Reserved Terms)’들은 법에 의해 정의된다. 이 용어들을 통해 구매자들은 해당 제품들이 특정 영농방식에 의해 생산되었고, 특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케팅 기준에서 예약용어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고, 정확하고, 기술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예약용어는 부가가치화된 특성이나 영농방식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이로우며, 이로써 추가 생산비용에 대한 추가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임의적 예약용어’를 통해 어떤 제품의 품질수준이나 거래등급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임의적 용어 (Optional Terms)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금육의 마케팅 기준에는 ‘-fed with’, ‘extensive indoor’, ‘free-range’, 또는 ‘traditional free-range’ 와 같은 임의적 용어들이 정해진 방법대로 생산된 제품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냉침법(Cold Extraction)’ 이란 용어는 규정된 과정에 따라 생산된 버진 및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유⁵⁾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용어들을 판매되는 상품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영농방식을 사용했음을 알리고 싶어 하는 농업생산자 및 식품의 첫 단계 생산자들은 ‘farmhouse’, ‘mountain’, ‘low carbon’, ‘natural’ 등과 같은 단어들을 종종 사용한다.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과 각 국가별 개념에 합당한 경우라면 이러한 설명 용어들은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과 그 배경에 놓여있는 영농 방식은 제품을 매력적이게 만든다. 따라서 조방적인 영농방식을 사용했음을 암시하는 용어가 집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이 오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대폭 감소시킨 영농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표식이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일정정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몇몇 분야에서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이와 같은 영농 용어(Farming Terms)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논점 3

- EU 마케팅 기준에서 ‘임의적 예약용어’에 대한 정의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해야 하는가?
- ‘mountain product’, ‘farmhouse’, ‘low carbon’ 과 같이 특정 부문에서 영농 방식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예약용어에 대해 유럽연합이 그 정의를 규정해야 하는가?

4) ‘Reserved terms’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용 용어’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예약어(Reserved word, 의미와 용법이 지정되어 사용되는 단어)’에 착안하여 ‘예약용어’로 번역, 사용하고자 함.

5)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Extra Virgin), 버진 (Virgin), 퓨어(Pure), 퍼미스(Pomace)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엑스트라 버진이 최상급의 올리브 오일임.

마케팅 기준의 간소화

EU의 일반적인 마케팅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 내부 차원에서, 혹은 다른 기관에 임무를 위탁하거나 국제기준을 참고함으로써 규칙작성을 간단화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단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이해당사자의 행정적 부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에 대한 의무적인 등급화(예: 크기 분류)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되고, 공공기관은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다수의 EU 마케팅 기준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또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적합한 경우에 이러한 국제기준들은 EU 마케팅 기준의 기초로 사용된다. EU의 마케팅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종작물의 경우, 일부 과일 및 채소에 적용되는 EU의 의무적 기준이 아닌 국제적 기준이 주로 적용된다. 즉 국제적 기준을 참고로 개별 회원국의 기준이 마련되거나 민간 상인들이 국제적 기준을 직접 사용한다. 한편 EU 역시 국제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 있으며, 때때로 EU의 기준들이 국제적 기준의 기초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장 수요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에 따라 마케팅 기준이 현실과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케팅 기준의 조정과 업데이트는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가 규제(Self Regulation), 간소화(Simplification)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자가 규제(Self Regulation):

관련 분야의 당사자들에게 제품신원, 제품 등급화 및 예약용어를 포함한 마케팅 기준을 확립 및 모니터 사업을 위임하는 것이다.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업거래에서 생산자와 상인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분야의 상인들과 기업인들은 스스로 실제적인 코드나 참고기준을 개발할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자가 규제’라 한다. 어떠한 논란도 중재 등을 통해 당사자들 간에 해결되기 때문에 공공 집행을 위한 행정비용이 저렴하다. 공공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기준은 감독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가 규제는 실제 시장상황에 매우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규범을 기안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유연하여 역동적인 시장 환경에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다. 기술적인 조정은 준수 의무를 지닌 기업에 대해서만 계약파트너 간의 동의하에 적용된다. 자가 규제 사례는 감자나 과일주스의 교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마케팅 기준의 조정과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자가 규제, 간소화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규정의 간소화(Simplified EU Regulation):

자가 규제는 실제 시장상황에 매우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신 상태로 마케팅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마케팅 기준에 대한 유럽연합의 승인과 개정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규제나 국제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자발적인 규정들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 공동규제는 공동체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목표를 각 분야의 승인된 이해당사자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케팅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입안자는 법의 필수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각 분야의 대표자들은 이 법을 보완하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자료 및 특화할 부분을 수립하는 것이다.
- EU 법률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EU가 마케팅 기준과 관련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몇몇 언어로만 (혹은 소수의 유럽 공식 언어로만) 작성될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 현재 규정들의 핵심내용은 비판적 리뷰와 과일·채소분야처럼 새롭고 조화로운 틀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간소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논점 4:

- 마케팅 기준 (혹은 일부분)의 입안, 실행 및 감독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자가 규제에 맡겨질 수 있을 것인가?
- 마케팅 기준 (혹은 일부분)을 EU 법률에 의해 규제할 경우, 행정적인 부담 측면을 포함하여 다음 각 경우들이 갖는 장단점?
 - 공동규제를 이용할 경우?
 - 국제적 기준을 참고할 경우?
 - 내용을 간소화하여 현재의 법률적 접근을 지속시킬 경우?

규정의 간소화는 공동규제나 국제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자발적인 규정들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농업생산 기본요건 및 마케팅 기준과 관련된 측면에서 자국의 농산품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녹서의 2부와 3부에서 다루고 있는 지리적 표시, 유기농업, 전통 특산품 보증, 최변방 지역 농산품 발전방안 등을 다루는 EU 특수 품질규정과 인증제도의 개선노력과 관련해서는 다음 호에서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product standards, farming requirements and quality schemes』, Brussels, 2008 (영문 및 독문)

말레이시아 농업의 동향과 농산물 교역*

권오복

1. 말레이시아 개요

국토·인구·종교

- 정식국가명칭: Malaysia
- 국토면적: 330,252km²(한반도의 약 1.5배)
- 인구(2007 추정): 2,717만 명
- GDP(2007): 1,870억\$
- 1인당 GDP(2007): 6,880\$
-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종족 : 말레이계 58%, 중국계 25%, 인도계 7%, 기타 3%, 외국인 체류자 7%
- 종교 : 이슬람교 60%, 불교 19%, 기독교 9%, 기타 12%
- 정치 : 입헌군주제
- 총리 : Abdullah Ahmad Badawi

13개 주와 3개의 연방령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의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하는 330,252km²이다. 국토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사이에 두고 말레이시아 반도와 말레이시아보르네오(Malaysian Borneo) 등 2개로 나뉘어 있다. 말레이시

* 본 내용은 말레이시아 관련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obkwon@krei.re.kr, 02-3299-4210)

아 주변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적도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열대기후대에 속한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지만 연방정부는 푸트라자야(Putrajaya)에 있다. 말레이시아 인구는 약 2,700만 명으로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아세안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다. 인구의 58%가 말레이계고, 중국계(25%), 인도계(7%)가 그 뒤를 잇는다. 공용어는 말레이어인데 영어도 널리 쓰인다.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슬람교가 국교이며 인구의 60% 가량이 이슬람을 믿는다. 그 다음이 불교(19%), 기독교(9%), 힌두교(6%) 등이다.

역사

말레이시아 반도, 사바(Sabah), 사라왁(Sarawak) 전역에 걸쳐 고고학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다. 5만년 전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이주해 말레이 반도에 정착한 세망족(Semang)이 가장 오래된 조상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니그리토에 속하고 오스트로네시아족(Austronesian)으로 분류된다. 초기 오스트로네시아족의 대표적인 후예인 세노이(Senoi)족은 5,000년 전에 언어와 기술을 가지고 말레이 반도 남부지역에 정착하여 토착민과 융합되었다.

초기 말레이시아는 여러 왕국들로 구성되었다. 2~3세기 경 말레이시아에는 30여 개의 왕국들이 있었다.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말레이 반도는 스리비지아(Srivijaya) 왕국의 영향하에 있었다. 1403년에 스리비지아 왕국이 멸망하면서 말레카(Melaka)로 건너온 파라메스와라(Parameswara)왕자가 15세기 초 말라카술타네이트(Malacca Sultanate)라는 도시국가를 세웠다. 이후 동아시아 무역로 확보를 노린 포르투갈이 1511년 말라카왕국을 점령하였으며 1619년에 6개월간의 공격 끝에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말라카를 차지하였다.

영국은 1786년 페낭섬을 동인도회사에 임대해 주면서 말레이 반도에 식민지를 갖게 된다. 1824년 영국은 네덜란드와 담판을 벌여 말레이 반도는 영국, 수마트라는 네덜란드가 지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말레이 반도를 침범했다. 일본의 패망으로 다시 영국이 말레이시아에 돌아왔으나, 1953년에 말레이계와 중국계, 인도계가 고루 참여한 동맹당이 결성되었다. 동맹당의 결속으로 말레이시아는 독립을 추진하여 1957년 8월 3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오늘날의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명은 1963년 말라야(Malaya), 영국령이었던 사바(Sabah), 사라왁, 싱가포르가 14개로 구성된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탈퇴하였다.

그림 1 말레이시아



자료: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en/c/c/CIA-Malaysia-map.gif>

경제

수세기 동안 말레이 반도와 동남아시아는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말라카와 싱가포르가 유명해지기 전에 도자기류와 양념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국이 말라야를 통치하면서부터 고무와 팜오일도 교역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말라야는 세계 최대의 주석, 고무, 팜오일의 생산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상품과 다른 원료 농산물로 인해 20세기 중반 말레이시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영국은 말라야에서 노동력을 조달하지 않고 중국인과 인디언을 데려와 광산과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게 하였다. 많은 노동자가 계약이 종료된 후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말레이시아에 남아 정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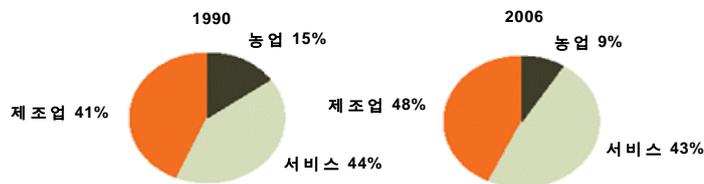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1957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3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동 계획의 이름이 바뀌고 1965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을 답습하기 시작하면서 광업과 농업위주의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투자와 함께 중공업이 번성하였고 수출이 말레이시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에 걸쳐 말레이시아 경제는 연평균 7%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에는 물가도 안정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공급문제가 발생하였다. 노동력 부족으로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불법노동자였다. 은행들은 경제호황을 틈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1997년 금융위기때 말레이시아 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외환위기로 타격을 입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주식 가치도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거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화폐의 환율을 고정했다가 2005년도에 폐지하였다. 1999년 2월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정상을 회복하였다.

19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980~90년에 걸쳐 연평균 7%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 2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 구성



자료: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2008)

말레이시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농업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5%에서 2006년 9%로 감소하였다. 2007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870억 달러로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4,317억 달러)와 태국(2,457억 달러) 다음으로 GDP 규모가 크다.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6,880달러로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다음으로 높으며 2006년 말레이시아의 총 교역액은 2,85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다.

표 1 아세안 국가의 경제 지표

국가별	국토면적 km ²	전체인구 천명	GDP (경상) 백만달러	1인당 GDP(경상) 달러	무역규모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총교역액 백만달러
	2007	2007	2007	2007	2006	2006	2006
브루나이	5,765	396	12,317.0	31,076.1	7,619.4	1,488.9	9,108.3
캄보디아	181,035	14,475	8,662.3	598.4	3,514.4	2,923.0	6,437.4
인도네시아	1,890,754	224,905	431,717.7	1,919.6	100,798.6	61,065.5	161,864.1
라오스	236,800	5,608	4,128.1	736.1	402.7	587.5	990.2
말레이시아	330,252	27,174	186,960.7	6,880.2	157,226.9	128,316.1	285,543.0
미얀마	676,577	58,605	12,632.7	215.6	3,514.8	2,115.5	5,630.3
필리핀	300,000	88,875	146,894.8	1,652.8	47,410.1	51,773.7	99,183.8
싱가폴	704	4,589	161,546.6	35,206.1	271,607.9	238,482.0	510,089.9
태국	513,120	65,694	245,701.9	3,740.1	121,579.5	127,108.8	248,688.3
베트남	329,315	85,205	71,292.1	836.7	37,033.7	40,236.8	77,270.5
A S E A N	4,464,322	575,525	1,281,853.9	2,227.3	750,708.0	654,097.8	1,404,805.8

자료: ASEAN Secretariat (<http://www.aseansec.org/13100.htm>)

2. 농업 생산 동향

농업 개요

말레이시아는 전 국토의 70%가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으며, 말레이반도의 남부와 보르네오섬 북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면적은 약 3,300만 ha로 우리나라(남한)의 3.3배 정도이다. 2005년 현재 말레이시아 농경지 면적은 790만 ha로 전 국토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총 농경지 면적 중 관개수리 면적의 비중이 낮아 강우량 등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업 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농업 관개시설의 확충과 농촌지역 하부구조 개선 등 농업근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현재 말레이시아 농경지 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업 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다.

표 2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ha,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면적	32,855	32,855	32,855	32,855	32,855	32,855	32,855	32,855	32,855
농지면적	4,800 (14.6)	6,900 (21.0)	7,604 (23.1)	7,890 (24.0)	7,870 (24.0)	7,870 (24.0)	7,890 (24.0)	7,870 (24.0)	7,870 (24.0)
관개수리면적	320 (6.7)	335 (4.9)	363 (4.8)	365 (4.6)	365 (4.6)	365 (4.6)	n.a.	n.a.	n.a.

주: 농지면적중 ()안은 총면적대비, 관개수리면적 비율은 농지면적대비 비율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또한 말레이시아는 새로 개간 혹은 간척되는 국토의 일부를 농경지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곡물재배 면적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를 통해 농업용 토지가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5년 이후 군사용, 공업용, 주택용 등 다른 분야의 토지수요 증대로 인한 농지전용 확대로 인해 최근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4년 기준 말레이시아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004년 기준 2,500만 명이고, 그 중 농가인구는 8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 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한 총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39%에서 2004년에 15%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체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1%에서 2004년 16%로 낮아졌다. 농촌의 많은 남자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여성이 농촌노동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바(Sabah) 지역의 경우 농업노동력의 75%가 여성이다.

표 3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단위: 백만명, %

구 분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인구	13.9	18.1	20.7	23.0	23.5	24.0	24.4	24.9
농가인구	8.7 (62.5)	8.2 (45.3)	9.4 (45.3)	9.8 (38.3)	9.8 (38.3)	9.9 (41.3)	8.9 (36.5)	8.7 (34.9)
농업인구	5.4 (38.8)	4.6 (25.4)	4.4 (21.3)	4.1 (17.8)	4.0 (17.0)	3.9 (16.3)	3.8 (15.6)	3.7 (14.9)
농업종사자수	2.1 (41.0)	2.0 (27.0)	-	1.8 (19.0)	-	-	1.8 (17.0)	1.7 (16.0)

주: ()는 총인구대비 비중이고 농업종사자수의 괄호는 경제활동인구중 비중임.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농업생산 증가세 둔화

말레이시아 농업생산은 주로 반도지역의 중앙산맥, 빠탄산맥을 끼고 있는 연안 및 반도 남부의 평야지대, 보르네오 섬의 북부 연안의 평야지대에서 이뤄진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은 고온다습한 열대우림 기후 특성으로 인해 팜유, 천연고무, 코코아 등 열대 농작물과 쌀, 코코넛, 사탕수수, 파인애플, 원목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농업생산은 1960년대에 연평균 6.5% 증가하였지만, 최근 년에는 연평균 3% 증가하고 있다. 제한된 경지 면적이 농업생산 증가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말레이시아는 개간 또는 간척을 통해 농경지 면적을 확대해 왔다.

말레이시아 농업생산은 최근 연평균 3% 증가하고 있는데 제한된 경지면적이 농업생산 증가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농산물 생산

말레이시아의 농업생산 증가세 둔화의 또 다른 이유는 전반적인 농업생산성 향상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물의 경우 생산성이 1961~1980년에는 연평균 3% 정도 향상되었으나, 1981~2001년에는 그 비율이 0.67%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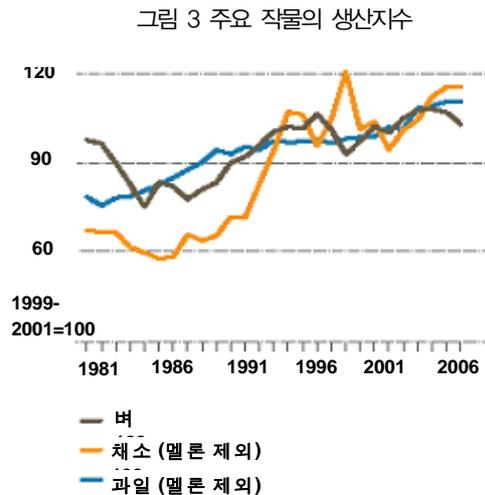
말레이시아에서 팜유, 고무, 임산물이 전체 농업생산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벼는 농업생산의 3.4%를 차지하며 그밖에 코코넛, 채소, 과일, 잎담배, 고추가 농업생산의 15.2%를 차지한다.

팜유는 말레이시아 제1의 농산물로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팜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며 세계 팜유의 43%를 생산한다.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농민들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동시에 팜유를 이용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등 팜유 용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다른 국가들의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팜유의 시장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소 생산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빠르게 증가한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회복세에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채소 생산이 증가한 원인은 재배면적의 증가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채소농가 규모화 노력 때문이며 최근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과 채소, 과일의 생산이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생산성 정체 때문이다.

축산물 생산

말레이시아에서 경종작물과 달리 축산물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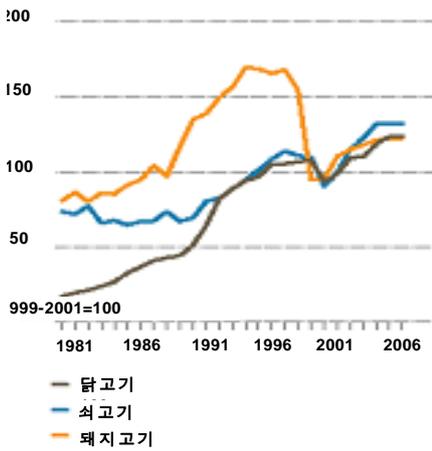


자료: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2008)

대 이래 연평균 축산물 생산성은 3.7%씩 향상되었다. 이처럼 축산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은 새로운 축종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가금육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진다.

가금육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축종이다. 가금육의 생산성은 말레이시아 농업에서 가장 높고 세계적인 수준이다. 가금육은 주로 규모가 큰 양계업자가 생산하는데 이들은 식품가공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림 4 축산물 생산 지수



자료: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2008)

1998년 전만 해도 말레이시아에서 양돈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산업이었으나 1990년대 말 니파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대량의 돼지가 살처분되었다. 현재는 양돈 산업의 회복세가 완만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돼지고기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계가 주로 소비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양돈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또한 태국 등 경쟁국에 비해 돼지고기 생산비가 높아 수출 기회도 많지 않다.

말레이시아의 쇠고기 및 낙농 산업은 규모가 매우 작다. 이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온의 습한 기후가 쇠고기 및 우유 생산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목초지도 좁은 편이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소규모 양축농가가 담당하여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농산물 수급

말레이시아는 식물성유와 일부 축산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해 자급을 이루지 못한다. 곡물의 경우 국내 생산이 153만 톤으로 소비량인 367만 톤의 42%만 충족하여 487만 톤의 곡물을 수입한다. 설탕 및 감미료의 말레이시아 국내 생산은 13만 톤으로 100만 톤에 달하는 소비량의 13%만이 자급되고 있어 수입량은 소비의 137%에 달하는 138만 톤이다.

말레이시아의 육류 생산량은 102만 톤이고, 19만 톤 정도를 수입한다. 육류와 낙농 제품 중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은 자급을 이루지만 육류 전체로 볼 때 자급률은 89%이다. 낙농제품 생산량은 4만 톤 정도이고, 수입량은 115만 톤으로 낙농제품의 자급률도 4%에 불과하다.

식물성유는 자급률이 4,000% 달할 만큼 소비대비 생산비중이 높다. 말레이시아는 1,421만 톤의 식물성유를 생산하는데 국내 식물성유 소비는 36만 톤이며 1,376만 톤 정도를 수출한다.

2004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5대 수출 품목은 팜유, 건조고무, 지방산(fatty acids), 오일팜 컨스(oil, pam kerns), 코코넛 버터이다. 5대 수입 품목은 오일팜, 코코넛빈, 옥수수, 밀, 자연고무 등이다.

표 4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현황(2001-2003)

단위: 천톤, %

구 분	생산	수출	수입	재고변화	소비
곡물	1,526 (42.0)	299 (8.0)	4,871 (133.0)	2,428 (66.0)	3,670 (100.0)
식물성유	14,211 (3,998.0)	13,761 (3,871.0)	702 (198.0)	797 (224.0)	355 (100.0)
설탕 및 감미료	130 (13.0)	500 (5.0)	1,376 (137.0)	3 (0.0)	1,004 (100.0)
육류	1,019 (89.0)	18 (2.0)	186 (16.0)	36 (3.0)	1,151 (100.0)
낙농제품	41 (4.0)	181 (16.0)	1,355 (118.0)	69 (6.0)	1,145 (100.0)

주: ()는 소비량대비 비율임.

자료: http://www.fao.org/statistics/yearbook/vol_1_1/site_en.asp?page=consumption

3. 식품소비 변화

198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1인당 연간 식품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와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곡물의 소비량이 전체 식품 소비량의 약 37%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류가 말레이시아의 식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중심으로 한 육류 1인당 연간 소비량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 1인당 소비량은 국제 기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인 반면 채소류 소비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육류, 어류,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추세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식습관 패턴의 다변화와 소득향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향후 말레이시아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인한 축산 및 낙농품, 온대과실, 채소류 등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이들 식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많은 신흥개도국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녹말 위주의 식생활에서 밀과 축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다. 연평균 5% 가량의 1인당 소득 증가와 함께 연간 2.5%에 달하는 인구 성장, 서구식으로 변하는 소비자 선호 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식품 소비는 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3대 종족이 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50% 가량이 말레이인이고 25% 정도가 중국계이며 나머지는 토착인디언이다. 각 민족은 독특한 식습관을 가

말레이시아의 곡물 소비량은 전체 식품 소비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과일류 소비량은 국제 기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채소류 소비량은 적은 편이다.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인, 중국계, 토착인디언 등 3대 종족이 있어 각 민족마다 독특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지고 있는데 말레이는 대부분 무슬림으로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멀리하고, 할라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한다. 반면에 중국계는 돼지고기의 주된 소비자로서 다양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며 인디언 음식에는 고기, 양념, 빵이 풍부하다.

밀과 육류 소비가 증가세

말레이시아의 1인당 밀 소비량은 1990년에 33kg에서 2005년에 58kg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5% 정도 감소하였다. 쌀 소비가 감소추세를 나타내지만 쌀은 말레이시아인들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의 1/3 정도를 공급하는 주식이다. 카사바와 같은 녹말 근류 소비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5 말레이시아 1인당 식품 소비

구분	1990	2005
1일 칼로리 섭취	칼로리	칼로리
식물성 식품	2,303	2,552
동물성 식품	337	383
계	2,639	2,935
연간 1인당 섭취	kg	kg
곡물	160.3	171.6
밀	32.6	57.6
쌀	118.2	99.9
옥수수	6.1	9.3
녹말근채류	26.1	22.8
카사바	20.9	13.6
감자	3.2	6.4
고구마	0.3	0.5
설탕작물	206.9	383.2
두류	2.7	2.6
유지작물	133.9	90.4
채소	26.1	49.2
과일	55.2	57.9
육류	35.3	47.6
닭고기	20.1	31.8
오리 및 거위 고기	2.1	4.0
쇠고기	2.8	4.7
돼지고기	9.7	6.2
양 및 염소고기	0.6	0.9
우유(전지, 산선)	32.9	43.5
계란	14.1	12.0
어류	48.0	57.3

자료: FAO database(www.faosta.fao.org)

또한 같은 기간 쇠고기 소비도 상당정도로 증가하였다. 닭고기는 말레이시아인들의 육류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에 48kg에서 2005년에 57kg으로 증가하였다. 그밖에 소비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설탕, 과일, 채소, 우유 등이다.

육류소비의 국제비교

1인당 1일 칼로리 섭취기준 말레이시아인들의 식품 소비 패턴은 태국, 중국, 한국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국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말레이시아인들의 축산물 소비는 많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5년 말레이시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미국의 51% 수준이며 우유 소비량 역시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인들의 육류 소비량은 아시아의 신흥국가들보다 높은 편인데 2005년 말레이시아인들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48kg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35kg, 태국의 24kg보다 많다.

말레이시아에서 축산물 소비량은 많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 아시아의 신흥국가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표 6 말레이시아 및 세계 주요국의 육류소비 비교

구 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미국
1일 섭취량	칼로리							
식물성 식품	2,552	2,740	2,339	2,391	2,532	2,232	2,116	2,627
동물성 식품	383	244	182	571	409	431	953	1,031
계	2,935	2,985	2,521	2,962	2,941	2,664	3,069	3,658
연간 1인당 섭취량	kg							
곡물	171.6	164.7	206.6	188.1	215.7	173.0	98.8	177.0
녹말뿌리	22.8	145.2	23.3	75.3	19.1	38.3	54.0	57.3
유지작물	90.4	67.3	50.4	71.4	86.7	68.4	101.4	80.0
과일	57.9	72.4	35.9	57.6	64.6	58.3	98.7	122.6
채소	49.2	31.5	68.0	290.0	251.4	130.4	100.0	124.4
설탕작물	383.2	396.1	201.4	76.9	123.5	119.1	254.9	173.2
육류	47.6	23.9	4.8	60.1	34.6	34.7	89.4	93.6
우유	12.0	8.7	1.9	18.2	11.0	18.6	7.4	14.8
계란	12.0	8.7	1.9	18.2	11.0	18.6	7.4	14.8
어류	57.3	31.0	4.6	25.4	51.0	64.7	22.7	23.4

자료: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2008)

소비자의 슈퍼마켓 구매

말레이시아에서 식품소비 증가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은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의 판매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대적인 식품저장시설을 가진 슈퍼마켓은 냉장 및 냉동식품의 중요한 판매처이다.

2005년 주로 가공식품이 판매되는 슈퍼마켓은 39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식품 매출액의 34%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운영되는데 까르푸, 마크로, 데일리팜홀딩스인터내셔널(Daily Farm Holdings International), 자야 주수코(Jaya Jusco)와 같은 외국인 소유의 체인 형태를 띤다.

4. 농산물 교역

관세

ASEAN 국가 가운데 WTO 회원국은 ASEAN 역외 WTO 회원국에 대해서 WTO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말레이시아도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ASEAN 회원국들 간에는 1992년에 체결된 ASEAN 자유무역지대(Ascan Free Trade Area: AFTA)¹⁾의해 역내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CEPT)가 적용된다. 2005년 1월 1일 현재 ASEAN 6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교역 대상 상품의 99%에 대해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품목 중 60% 이상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AFAT 설립 당시 6%에서 출발했던 ASEAN 6개국 평균 관세는 2% 이하로 낮아졌다.

ASEAN 국가 가운데 WTO 회원국은 ASEAN 역외 WTO 회원국에 대해서 WTO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말레이시아도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소개되는 관세 수준은 양허실행관세(bound and applied tariffs)이다. 양허관세는 WTO가 회원국이 수입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최대로 허용하는 관세이다. 실행관세는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인데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실행관세는 2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실행관세는 대단히 높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함유한 제품이 139%, 메슬린 밀가루는 96%, 배추는 90%, 신선 또는 냉장 절단 닭고기는 85%이다.

일부 품목에 대한 높은 양허관세에도 불구하고 실행관세는 아주 낮거나 영세율이다. 예를 들면 산동물, 육류, 곡물, 대부분의 채소, 일부 낙농제품, 설탕의 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실행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쌀(45%), 요구르트(25%), 소세지와 혼합조미료(20%), 일부조제육류(15~20%),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15~29%) 등이다. 요구르트, 항공기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 소시지, 돼지고기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실행관세는 WTO 양허세율보다 높은 것이 있다.

1) AFTA는 ASEAN회원국간 무역거래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여 ASEAN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역내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2년 1월에 설립된 일종의 경제공동체이다. 유럽연합이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에 대해서도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AFTA는 역내 공동관세만 적용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개별회원국이 상이한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쿼터

2008년 4월 말레이시아는 산돼지, 산가금, 돼지고기, 가금육, 우유, 조란(birds eggs), 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쿼터를 실시하였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쿼터는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라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쿼터는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08년 4월 관세쿼터가 적용되기 전에는 이들 품목의 실행관세는 영세율이었다. 관세쿼터 하에서 쿼터내 관세(in-quota tariffs)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5% 수준이다. 쿼터외 관세(above-quota tariffs)는 20%에서 50% 정도이다. 관세 쿼터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의 무역장벽이 늘어난 셈이다.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는 아세안(ASEAN)을 비롯하여 중국, 파키스탄, 한국, 일본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

버나스(BERNAS)는 말레이시아의 쌀 독점 수입기관이다. 이 기관은 연간 전체 쌀 공급량의 40~50%에 해당하는 70만~90만 톤의 쌀을 취급한다. 많은 품목의 농산물이 수입시 수입허가를 요구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품목에는 계란, 가금육, 신선 또는 조제 육류 및 내장, 산동물, 배추, 설탕, 곡물분, 쌀, 액상우유 등이다.

돼지고기 이외 육류, 가공 육류, 가금육, 계란 및 계란제품 수입시 공인된 이슬람 센터로부터 할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들 품목이 취급되는 시설은 말레이시아 검역청과 이슬람부의 조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증명과정의 투명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호주의 경우 2006년 할랄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이슬람국가평의회는 가축의 할랄식 도축에 있어서 기계적 또는 질식에 의한 도살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전기적 방식에 의해 기절시키거나 기절시키지 않은 경우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설탕, 빵, 밀가루는 가격통제를 받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설탕과 밀가루의 국내 및 수입 가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통제하고 사전에 정한다. 국내 가격 상승압력이 현저하게 높지 않는 한 수입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 방식을 탈피하여 시장 지향적인 조치로 대체할 것을 고려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6월 말레이시아 국내 무역 및 소비자부(the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는 신선 닭고기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공닭고기 수입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설탕과 밀가루 제품에 대한 가격은 계속 통제한다.

많은 품목의 농산물이 수입시 수입허가를 요구하는데 돼지고기 이외 육류, 가공 육류, 가금육, 계란 및 계란제품 수입시 공인된 이슬람센터로부터 할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들 품목이 취급되는 시설은 말레이시아 검역청과 이슬람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FTA 참여

ASEAN의 회원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ASEAN FTA의 회원국이다. ASEAN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한국-ASEAN, 일본-ASEAN 무역협정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최근에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 여러 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촉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농산물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농산물 무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ASEAN과 FTA를 체결하였다. 동 협정에 의하면 양측 상품 시장을 자유화하고 통합하여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까지 상품의 80%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가 ASEAN의 중추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교역

말레이시아는 고온 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성을 가진 나라로 팜유, 천연고무, 코코아, 코코넛, 사탕수수, 파인애플 등 열대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밖에 쌀, 목재 등도 생산하고 있다. 2005년도 기준 말레이시아의 전체 교역규모는 2,556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168억 달러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0년 이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2005년에는 263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으며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48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8.3%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는 고온 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성을 가진 나라로 팜유, 천연고무, 코코아, 코코넛, 사탕수수, 파인애플 등 열대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밖에 쌀, 목재도 생산하고 있다.

표 7 말레이시아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교역	수출액	29,447	73,761	98,240	87,969	94,061	104,968	126,646	140,950
	수입액	29,252	77,492	82,202	73,744	79,761	83,617	105,767	114,603
	무역수지	195	-3,731	16,038	14,225	14,300	21,351	20,879	26,347
농산물 교역	수출액	4,360	8,228	4,348	5,521	7,374	9,581	10,916	10,790
	수입액	2,137	3,877	3,070	4,028	4,300	4,333	5,842	5,982
	무역수지	2,223	4,351	1,278	1,493	3,074	5,248	5,074	4,808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부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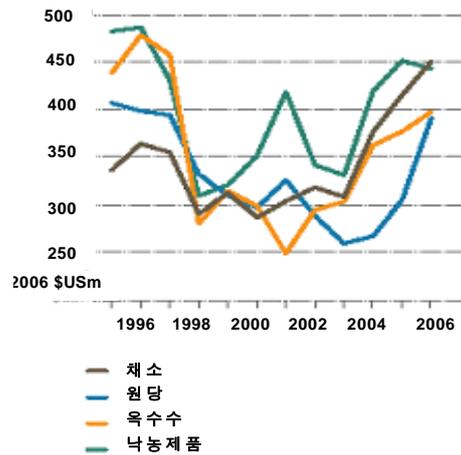
되는 추세다. 2005년 농산물 수출액은 108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요 수출 농산물은 팜유, 고무, 코코아, 당류, 후추, 연초, 파파야 등 열대성 작물과 원목, 제재목이다.

2005년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입액은 약 60억 달러로 주요 수입농산물은 쌀,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류와 쇠고기, 우유 등 축산물, 온대성 과일류, 담배 등이다.

200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수입액은 채소(4억 5천만 달러), 낙농제품(4억 4천만 달러), 옥수수(4억 달러), 설탕(3억 9천만 달러)이다. 그밖에 쌀, 밀, 유지작물, 목화 수입이 각각 2억 8천만 달러이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채소, 옥수수, 설탕, 낙농제품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그 이후에는 빠른 소득 향상 탓에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태국, 유럽연합, 호주, 미국 등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다. 호주, 유럽연합, 미국 등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감소세를 띠는 가운데 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과 태국은 여러 가지 농산물에서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채소, 옥수수, 채유용종실, 목화 등이다. 태국으로부터는 쌀, 채소, 설탕 등을 많이 수입한다.

그림 5 말레이시아의 주요 농산물 수입 추이



자료: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2008)

안-말레이시아 농산물 교역

2007년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농림축산물 수출입은 각각 2,125만 달러, 6억 614만 달러로, 1998년 대비 수출은 218%, 수입은 137%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만성적인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ASEAN과 FTA를 체결한 2006년 이후 농산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8~2007년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37억 3,891만 달러(연평균 4억 1,543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임산물이 차지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비중도 30%대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신선농산물은 과실류(배, 단감 등)와 일부 버섯류이며 대부분이 면류, 과자류, 전분 등 가공농산물이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중 수입액수가 가장 큰 품목은 팜유(1억 3,500만 달러)이며 그밖에 박류(2,773만 달러), 후추(530만 달러), 과자류(500만 달러) 등이 많이 수입되는 편이다. 임산물은 합판(2억 2,753만 달러), 제재목(5,334만 달러), 단판(5,295만 달러) 등이 주로 수입된다.

5. 시사점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실행관세율 수준이 낮아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수출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 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향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실행관세율 수준이 낮아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수출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여 말레이시아인들은 밀, 육류, 채소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ASEAN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6.0% 증가한 2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주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이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은 2,000만 달러 내외로 적은 편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우리나라와 식습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채소류와 과일류 등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가 신규로 공략할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계를 대상으로 기존의 배, 단감과 더불어 유자차, 사과, 감귤 등의 과일류의 신규 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오복 외,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488호, 2004.
- 네이버백과사전, 말레이시아의 역사, 경제 (<http://100.naver.com/100.nhn?docid=714501>)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http://www.kati.net/>)
- 안민기 외, 『동남아시아10개국』, 김영사, 2005.
- FAO, FAO Statistical Yearbook, Country Profiles (http://www.fao.org/statistics/yearbook/vol_1_2/pdf/Malaysia.pdf)
- FAO, FAOSTAT(<http://faostat.fao.org/site/339/default.aspx>)
- ASEAN Secretariat(<http://www.aseansec.org/>)
-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 Changing food consumption and imports in Malaysia, ABARE Research Report 08.6 August 2008.
- Wikipedia, Malaysia(<http://en.wikipedia.org/wiki/Malaysia>)

표 8 말레이시아의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양허 및 실행관세(%)

품목	양허세율(2004)	실행세율(2006)
산동물		
소(번식용 제외)	5	0
쇠고기		
도체, 이분도체, (뼈 없는것, 뼈채 절단, 신선, 냉장, 냉동)	15	0
돼지고기		
도체, 이분도체, 햄, 어깨살(뼈채) (신선, 냉장, 냉동)	139	0
양고기		
도체, 이분도체(뼈채, 뼈 없는 것, 신선, 냉장, 냉동)	15	0
가금육	56.7	0
닭날개 (신선, 냉장)	74.2	0
닭고기(절단, 신선, 냉장)	85	0
낙농제품		
탈지분유(무가당)	5	0
전지분유(무가당)	5	0
요구르트(신선, 향 첨가, 과일 또는 너트 포함)	10	25
버터	5	2
치즈(가공치즈 제외)	10	5
채소		
감자	5	0
양파, 마늘, 샬롯(Shallots), 부추	10	0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9%+\$12.87/kg	0
양배추	90	0
당근, 순무	9%+\$21.62/kg	0
과일 및 너트		
신선오렌지	20	0
포도(신선, 건조)	20	5
곡물류 및 곡분		
듀럼밀	5	0
기타 밀 및 메슬린	0	0
쌀(사료용 쇄미 제외)	40	40
밀 또는 메슬린가루	96	0
조제육류		
소시지 및 유사 제품(항공기 컨테이너)	15	15
소시지 및 유사제품(기타 컨테이너)	10	20
조제육류(돼지고기 제외)	15	0
돼지고기 조제품	10	15
설탕 및 설탕 과자		
사탕수수 및 사탕무우 설탕	15% 또는 \$35/톤 중 높은 것	15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코코아분	15	19
초코릿	15% 또는 \$2/kg 중 높은 것	15
조제 곡물류		
파스타	20	0~8

자료: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2008)

표 9 말레이시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진행 상황

구분	범위 및 상태
ASEAN FTA(A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까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6개국이 2003년까지 고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과 일반적 예외 품목(General Exception List)을 제외한 모든 상품무역에 대해 0~5%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함. · 베트남은 2006년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3년까지, 캄보디아는 2010년 까지 관세를 인하함. · 비관세장벽도 낮춰지는데 1993년부터 개시됨
일본-말레이시아 경제파트너십협정(JM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상품, 농산물, 서비스, 투자 분야 FTA를 추진하되,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2005년 체결) · 여러 분야에서 경제 협력 추진
말레이시아-파키스탄 긴밀경제파트너십협정(MAPC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 투자 및 경제 협력 추진 · 2007년 11월에 체결
ASEAN-일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까지 상품, 서비스, 투자 자유화 추진 · 기술 및 경제 협력 촉진 · 2005년 3월 체결
ASEAN (태국 제외)-한국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을 자유화하고 통합하여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까지 상품의 80%를 무관세 추진(2006년 5월 체결)
말레이시아-미국 FTA (MU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FTA 추진 (진행중)
말레이시아-호주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중
말레이시아-뉴질랜드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고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 활성화 목표(진행중)
말레이시아-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증진하고, 바이오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과학 및 교육 분야 협력 확대 목표로 진행중
말레이시아-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촉진, 경 및 기술 협력 목표로 협상 진행중
ASEAN- 인도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서비스, 투자 대상 협상이 진행중인데 2009년초반 까지 협상 종료 예상
ASEAN-중국 포괄적 경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의 당초 ASEAN 회원국과는 2010년까지, 나머지 4개국과는 2015년 FTA가 완전 가동되도록 합의 · 조기자유화(Early Harvest)프로그램에 포함된 품목은 2004년부터 관세 철폐 착수 · 조기수확 품목에 속한 농산물 중에는 산동물, 육류, 어류, 낙농제품, 채소 및 과일 등임 (동 FTA 골격은 2002년 체결)
ASEAN-호주, 뉴질랜드 FTA (AANZ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중

자료: Suthida Warr, Gil Rodriguez and Lammie Penm(2008)

표 10 우리나라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무역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농산물	6,026	11,353	7,714	9,043	10,257	10,723	11,860	14,398	17,515	20,526
	축산물	293	201	85	274	358	377	122	549	1,120	611
	임산물	347	299	621	807	573	402	176	226	39	110
	총 계	6,666	11,853	8,420	10,124	11,188	11,502	12,188	15,173	18,073	21,248
수입	농산물	122,837	111,997	100,054	91,596	106,793	121,745	157,867	154,371	158,111	225,079
	축산물	96	226	405	905	834	702	702	1,148	850	1,367
	임산물	132,114	189,928	231,014	234,060	252,178	243,995	248,663	275,713	325,288	379,399
	총계	255,047	302,151	331,473	326,561	359,805	366,442	402,234	431,233	484,250	606,146
무역수지	농산물	-116,811	-100,644	-92,340	-82,553	-96,536	-111,022	-146,007	-139,973	-140,596	-204,553
	축산물	197	-25	-320	-631	-476	-325	-580	-599	270	-756
	임산물	-131,767	-189,629	-230,393	-233,253	-251,605	-243,593	-248,487	-275,487	-325,249	-379,289
	총 계	-248,381	-290,298	-323,053	-316,437	-348,617	-354,940	-390,046	-416,060	-466,177	-584,898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표 11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곡류	-	-	1	1	2	9	9	12	32	48
- 기타곡물	-	-	1	1	2	9	9	12	27	34
전분	776	1,169	1,389	1,691	1,353	1,868	1,740	1,795	2,396	3,827
과실류	332	1,099	2,407	2,432	2,756	1,135	1,682	2,602	2,410	3,759
- 배	-	2	129	244	486	102	10	0	840	158
- 단일과실조제품	7	24	22	96	78	44	72	45	65	99
- 단감	11	885	1,887	1,912	2,037	946	1,398	2,373	1,959	3,112
- 기타과실	56	29	37	87	140	22	136	110	57	50
채소류	38	57	108	158	73	114	190	203	202	266
- 김치	-	22	-	6	3	23	18	38	6	10
- 토마토	-	13	-	-	-	-	12	0	15	0
- 딸기	-	-	-	-	6	26	33	1	12	100
- 채소종자	12	19	29	69	46	60	67	95	104	142
버섯류	-	-	3	1	-	11	1	4	123	603
화훼류	28	33	109	75	62	34	34	27	14	32
면류	166	242	502	618	1,447	3,116	3,192	4,660	4,177	4,024
과자류	230	108	356	471	886	1,017	908	1,050	972	1,103
당류	920	7,145	972	261	317	316	169	307	758	763
주류	98	148	225	379	306	430	290	352	390	443
인삼류	74	56	57	49	148	113	124	166	153	219
소오스류	82	31	141	188	169	249	306	70	210	894
커피류	143	101	137	1,017	770	516	448	427	1,119	358
농산물전체	6,026	11,353	7,714	9,043	10,257	10,723	11,890	14,398	17,515	20,526
돼지고기	-	-	10	43	-	-	-	-	10	-
축산부산물	236	29	39	68	41	89	86	465	916	441
가금류	17	153	-	127	282	275	-	-	97	-
축산물전체	293	201	85	274	358	377	122	549	1,119	611
섬유판	67	121	197	113	59	35	38	27	5	-
기타목재류	63	52	80	81	88	273	86	26	31	9
석제품	1	47	23	16	35	11	-	-	-	-
건과류	-	64	320	597	388	36	47	-	-	-
기타임산물	23	15	1	-	3	20	-	-	-	-
임산물 전체	347	299	621	807	573	402	175	226	39	110
총 계	6,666	11,853	8,420	10,124	11,188	11,502	12,188	15,173	18,673	21,248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표 12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두류	402	301	339	384	369	289	329	336	379	405
-비그나파세러스종	312	234	317	331	285	269	304	336	379	405
과실류	7	9	95	158	90	103	150	114	188	97
- 과실조제품	-	-	-	53	27	39	23	25	88	32
- 과실혼합물	-	-	19	5	-	-	9	-	-	24
- 코코넛	6	9	12	2	7	20	9	-	4	3
- 기타과실류	1	-	64	98	56	44	100	76	96	38
채소류	7,333	9,601	8,911	6,079	3,610	3,928	3,933	4,036	5,456	5,305
- 후추	7,332	9,600	8,905	6,036	3,576	3,910	3,927	4,035	5,452	5,298
- 기타채소류	1	1	6	43	34	18	2	1	3	-
화훼류	5	7	20	36	4	138	20	101	68	63
식물성유지	100,697	88,539	76,421	66,924	82,728	99,796	126,551	117,526	109,299	153,632
- 팜유	95,883	79,134	68,842	63,686	76,920	91,137	108,068	100,774	101,912	135,064
- 기타식물성유지	4,814	9,405	7,579	3,238	5,808	8,659	640	1,024	926	1,807
박류	10,975	8,442	8,441	10,134	9,450	5,751	13,301	11,446	20,080	27,733
과자류	64	325	957	1,031	1,261	1,120	1,363	3,117	4,335	5,001
농산물전체	122,837	111,997	100,054	91,596	106,793	121,745	157,867	154,371	158,111	225,079
낙농품	-	145	41	56	50	47	46	-	-	179
축산부산물	53	52	176	551	478	533	624	879	758	1,117
기타 축산물	43	29	188	298	306	122	22	14	22	47
축산물전체	96	226	405	905	834	702	703	1,148	851	1,367
원목	33,271	51,812	51,479	25,713	25,068	22,145	21,046	21,836	18,753	15,374
제재목	39,896	47,328	42,298	38,177	33,282	28,858	32,606	31,554	43,788	53,343
합판	39,896	47,328	42,298	38,177	33,282	28,858	132,150	152,549	189,398	227,533
단판	34,235	54,601	82,356	97,082	116,743	134,131	38,3031	43,333	39,067	52,949
섬유판	461	287	798	8,887	17,706	11,291	9,436	8,304	15,511	6,361
파티클보드	4,052	9,535	12,881	10,064	3,774	4,754	9,674	12,703	17,384	15,494
기타목재	7,209	4,889	5,566	5,240	3,401	3,279	3,133	2,266	2,752	4,402
임산물전체	132,114	189,928	231,014	234,060	252,178	243,995	248,664	275,714	325,289	379,699
총 계	255,047	302,151	331,473	326,561	359,805	366,442	402,234	431,233	484,250	606,146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한국·일본·EU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비교*

유 찬 희

대내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관심 분야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일본·EU의 국민의식 조사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 농업·농촌의 현재 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1. 조사 개요

3국의 조사 시기와 조사 방식, 조사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나, 농정 현안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국의 조사 시기와 조사 방식, 조사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나, 농정 현안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농업인·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고 이슈가 되었던 농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본문에서 참고한 내용은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이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농정 현안 및 국민의식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참고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1990, 1993, 2000, 2008년

*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림수산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chrhew@krei.re.kr, 02-3299-4232)

실시 결과¹⁾와 2002년 실시한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여론 조사」, 그리고 2006년 실시한 「식량 공급에 관한 특별 여론 조사」 등이다.

유럽연합에서는 TNS Opinion & Social을 통하여 2007년 유럽연합 시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유사한 조사가 2006년에도 실시되었지만, 2006년에는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반면,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2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한국, 일본, EU 국민 의식 조사 개요

구분	한국	일본	EU
조사 시기	2007년: 2008.12 ~ 1.25 2008년: 2008.9.5 ~ 9.26	2008.9.11 ~ 9.28	2007.11.19 ~ 12.14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2007년: - 도시민; 전국 도시지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대상 면접조사 (비례할당 추출법으로 표본 선정) - 농업인; 패널 2,000명 대상 우편조사(852명 응답) 2008년: 전년과 동일 - 도시민: 1,508명 - 농업인: 666명 응답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3,144명 면접조사(총화2단 무작위추출법으로 표본 선정)	27개 회원국 15세 이상 남녀 26,730명 면접조사 (인구규모, 인구밀도 반영한 다단계 무작위추출법으로 표본 선정)
비고	조사대상 농업인의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 상회	모집단 5,000명, 유효회수율 62.9% (3,144명)	2006년에는 25개국 대상 조사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추가)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關する世論調査」, 2008.1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

2. 주요 조사 결과 비교

농식품 수입에 대한 의식

한국과 일본 소비자는 국산 농식품을 수입 농식품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의 66.4%가 조건에 관계없이 국산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한 반면, 가격이 더 비싸도 국산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한국 도시민 응답자의 비중은 38.0%로 다소 낮은 편이다. 원산지에 관계없이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1.9%로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유럽연합 소비자들은 수입산도 EU 품질·안전성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6%에 이르렀다. 이는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엄격한 농식품 관련 기준

한국과 일본 소비자는 국산 농식품을 수입 농식품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 1990, 1993년 「식생활 농촌의 역할에 관한 여론 조사」, 1998년 「식량 농업 농촌의 역할에 관한 여론 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는 조건에 관계없이 국산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역내산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으로 농식품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의 완전 철폐 여부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고, 조건부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비중이 높았다.

표 2 국산수입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한국, 2008년)

구분	비율(%)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 구입	38.0
가격차가 크다면 수입 농산물 구입	19.4
국산이든 수입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선 고려	41.9
기타	-

주: 도시민 응답결과임.
 자료: 김동원외,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표 3 국산·수입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일본, 2008년)

응답 항목	비중(%)
국산품	66.4
가급적 국산품	22.6
가급적 수입품	0.4
수입품	0.1
상관 없음	10.0
잘 모르겠음	0.5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표 4 수입 농식품에 대한 입장 (EU, 2007년)

응답 항목	비율(%)		
	동의함	동의 안 함	모름
수입산도 EU 품질안전성 기준 충족 해야 함	86	5	9
농식품 무역장벽이 전혀 없어야 함	37	52	11
농식품 무역장벽이 있어야 함(개도국 제외)	50	36	1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농식품 구매 기준에 대한 인식

농식품을 구매할 때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원산지를 가장 중시하고, 일본 소비자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원산지를 가장 중시하고, 일본 소비자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부류나 소비자 유형별로 구매시 중시하는 기준은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한국 소비자들은 품목 부류에 따라 중시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채소, 과일, 수산물, 외식은 품질(맛)을, 곡물, 육류는 원산지(국산/수입산)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육류의 경우 원산지(국산/수입)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3.8%에 이르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²⁾ 이 점은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의사가 10.6%에 그친 결과에도 나타난다.

일본 소비자의 구매시 중시 기준은 국산·수입 농식품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³⁾ 국산 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89.%) 반면 수입산 선호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중시(80.0%)하였다. 2000년 7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안전성(82.0% → 89.1%), 품질(42.3% → 56.7%)을 중시하는 소비자 비율이 증가하였고, 신선도(57.3% → 51.6%)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5 농축산물과 식품 구입 시 고려사항 (한국 도시민, 2008년)

구분	비율(%)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가격	9.1	7.9	8.1	6.5	7.1	14.9
안전성	32.1	23.6	19.4	18.1	26.7	15.8
품질(맛)	36.1	20.1	24.9	56.4	34.9	50.7
브랜드(인지도)	1.3	3.6	5.5	2.2	2.2	5.2
원산지(국산/수입)	19.4	43.8	40.3	16.0	28.2	9.8
기타(영양 등)	2.1	1.0	1.9	0.7	0.8	3.4
모름/무응답	-	-	0.1	-	0.1	0.1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표 6 국산품수입품 선호 소비자의 중시 기준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국산품 선호	수입품 선호
신선도	51.6	26.7
품질	56.7	6.7
맛	28.0	6.7
안전	89.1	20.0
환경에 대한 배려	13.7	-
가격	17.2	80.0
기타(다양성, 모양 등)	7.3	6.7

주: 복수응답.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국내 식량 공급과 식량 자급률에 대한 인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 모두 자국의 식량 자급률이 충분하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국간 차이는 있지만 식량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였다.

2)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음.

3) 표 3 질문 문항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을 선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 실시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는 자국의 식량 자급률이 충분하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애그플레이션 사태를 겪으면서 곡물 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량 자급률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6년 59.5%에서 71.7%까지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은 73.6%에서 25.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애그플레이션 사태를 겪으면서 곡물 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식량 자급률이 낮거나 비교적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79.1%에 이르렀다. 2006년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식량자급률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9.1%p 상승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5%p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식량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93.3%에 달했다.

표 7 식량자급도에 대한 인식 (한국 도시민, 2008년)

응답 항목	비율(%)	
	2006년	2008년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59.5	71.7
현재 수준으로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37.6	25.4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2.9	2.9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표 8 식량 자급 수준에 대한 인식 (일본)

응답 항목	비율(%)
낮다	57.6
비교적 낮다	21.5
보통이다	8.3
비교적 높다	4.9
높다	2.4
잘 모르겠다	5.2

주: ‘현재 칼로리 기준 40%인 식량 자급률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앞의 조사 결과와 별도로 일본 국민들은 미래의 식량 수입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식량 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93.4%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불안하다’ 56.5%, ‘다소 불안하다’ 37.0%).

부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량·원자재 수입 감소, 외국의 흉작 가능성, 식량 증산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바이오 연료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애그플레이션 사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식량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식량과 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	55.8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외국의 흉작 가능성	49.6
장기적인 환경 문제 악화 등으로 인한 식량 증산 한계	46.6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에 따른 곡물 부족 가능성	35.8
인구 증가에 따른 식품 수요 증가	36.9

주: 복수응답.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농업농촌의 기능

한국과 EU 응답자 중 대다수가 농업·농촌의 기능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이 과거에도 중요하였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6년 81.4%에서 2007년 77.5%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85.9%로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까지 포함하면 중요성을 인정하는 비중은 88.4%, 85.8%, 93.8%에 이른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농업·농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0%에 달해, 양국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EU 응답자 중 대다수가 농업·농촌의 기능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농업·농촌 역할의 중요성 인식 (한국 도시민)

응답 항목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81.4	77.5	85.9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7.0	8.3	7.9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2.1	2.1	2.1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	9.3	-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4.1	2.7	4.1

주: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은 2007년 조사문항에만 포함.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년.

표 11 농업·농촌 역할의 중요성 인식 (EU)

응답 항목	비율(%)
매우 중요함	45
중요함	45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5
중요하지 않음	1
무응답	4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

일본에서는 농업의 주요 기능이 안전한 식량의 공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 안심, 안정의 '3安'에 대한 요구와 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농업과 농촌에서 각각 기대하는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농업의 주요 기능이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 안심, 안정의 '3安'에 대한 요구와 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농촌에 대한 수요에서도 농업의 기능과 연계하여 식품 공급 기능을 강조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환경 측면의 기능(생물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등)과 삶의 공간을 제시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농업에 대해 기대하는 기능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고품질의 신선하고 맛있는 식품 공급	50.4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식품 공급	25.6
수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식량 생산	53.1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저가로 식량 공급	29.9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및 안정적인 식량 공급	43.8
생산 단계의 안전과 위생관리 확보로 안전한 식품 공급	50.5
환경을 고려한 생산 방식을 통한 식량 공급	41.0
기타	3.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표 13 농촌에 대해 기대하는 기능 (일본)

응답 항목	비율(%)
식품 생산	65.8
지역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장소	46.1
수자원을 저장하고 재해를 방지	29.6
전통 문화를 보전하는 공간	18.2
여가 활동의 공간	8.3
농촌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교육의 장	36.1
생물 서식 환경의 보전과 경관 형성	48.9
기타	2.9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농업·농촌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농업인, 도시민 모두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18.2%)을 제시한 반면, 도시민은 '농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강화'(17.4%)로 응답하여 생산자·소비자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4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한국, 2008년)

응답 항목	비율(%)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의 사회복지 확충	14.0	17.0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47.7	28.1
농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강화	3.0	17.4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등 유통구조 개선	4.8	11.3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의 자연환경 보존	3.1	7.9
농촌 기반시설 확충 등 거주환경 개선	4.1	3.6
농업·농촌 관심 제고와 소통기회 확대	3.5	2.9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18.2	10.4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농업 육성	0.3	1.5
무응답/모름	1.3	0.0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일본의 경우 농업 부문의 쇠퇴와 농촌 지역의 과소화·고령화 추세 속에 향후 농업·농촌 정책 방향의 경제적 효율성 및 국토·환경 보전 기능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68.2%). 국토·환경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도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1996년과 비교할 때 양자를 모두 중시(14.0% → 17.4%), 국토 환경 보전 기능을 보다 중시(42.2% → 68.2%)하는 의견은 증가한 반면, 경제적 기능을 더욱 중시(26.8% → 9.3%)해야 한다는 의견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농업 부문의 쇠퇴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추세 속에 향후 농업·농촌 정책 방향의 경제적 효율성 및 국토·환경 보전 기능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표 15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경제성 효율성보다 국토환경보전 기능 중시	17.4
경제성 효율성 향상 노력, 국토 환경 보전 기능도 중시	68.2
국토환경보전 기능보다 경제성 효율성 중시	9.3
기타	5.2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유럽연합은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1순위를 제시하고, 1순위를 포함하여 최대 4개 분야까지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 비율과 1순위 응답 비율에서 가격 안정, 신선·안전한 식품 생산, 농가소득 안정 분야가 가장 큰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표 16 농업농촌 정책의 우선 순위 (EU)

응답 항목	비율(%)	
	전체	1순위
농식품 소비자 가격 안정	43	11
신선·안전한 농식품 공급	42	10
생산자 소득 안정	40	19
환경에 대한 고려 증진	33	4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촉진	30	9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생산 장려	29	8
동물복지	25	2
유기농업 확대	24	4
가족농 보호	24	3
농산물 시장 안정화	23	4
유럽농업의 경쟁력 강화	21	7
지속가능한 영농 양식 확대	21	4
고품질 농산물 생산	21	2
원산지 및 생산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19	3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19	3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

참고자료

-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2.
-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농림수산성, 1998.9.
- 농림수산성, 農産物貿易に関する世論調査, 농림수산성, 2000.7.
- 농림수산성, 食料の供給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 농림수산성, 2006.11.
-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농림수산성, 2008.11.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



국제기구 동향

DDA, 2009년 1월 농업협상

DDA, 2009년 1월 농업협상*

신유선

지난해 12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¹⁾ 개최가 무산된 이후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9년 1월 31일에 개최 예정인 비공식 통상장관회의(Informal Gathering)를 계기로 조금씩 진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DDA 농업협상 동향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의 제2의제는 “DDA 협상의 향후 일정”으로 각료들이 현재의 협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교환하고,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는 DDA 협상의 장은 아니지만, 매년 다보스 포럼 시기에 개최되어 DDA 협상 진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이번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는 각료들이 2개의 이슈에 대하여 각 1회 발언(총 2회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의제는 “금융 위기가 무역에 미치는 결과(Consequences of Financial crisis on Trade)”로 참석국들이 세계 금융위기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국가별 사정(challenge, risk)에 대해 언급을 하되 특히 “무역 금융(Trade Finance)”에 중점을 두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DDA 협상의 향후 일정(Next step for DDA Negotiation)”으로 각료들이 현재의 협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교환하고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1)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린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라미(Lamy) 총장은 2009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y Forum)²⁾에 참석하는 통상 장관들이 업계와 회동(Business Gathering)을 갖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실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두 번째 의제인 DDA 협상의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일부 참석자들은 DDA 협상뿐만 아니라 정례 각료회의 개최 문제 등 WTO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지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³⁾에서 대체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각료급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DDA 농업협상 전망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이후 12월에 다시 한 번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DDA 협상은 잠시 주춤하였다. 하지만 협상이 과거처럼 중단된 것은 아니며 회원국들 간에 2009년도 협상이 4차 수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보스 포럼 시기에 개최될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의제로 DDA 협상뿐만 아니라 각료회의 개최 문제도 다루기를 희망함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DDA 협상은 2006년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라미(Lamy) 사무총장이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07년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협상 재개를 합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보스 포럼은 DDA 협상 진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바 있다.

다보스 포럼 시기에 개최될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의제로 DDA 협상뿐만 아니라 각료회의 개최 문제도 다루기를 희망함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 자료(www.maf.go.kr)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 농림수산식품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 2)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의 통칭이다. 세계 각국의 정계(政界)·관계(官界)·재계(財界)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민간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총리, 장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
- 3) UR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했던 각료급 최고의결기관을 말한다. UR협상시 무역교섭위원회 산하에 크게 상품협상그룹(GNC)과 서비스협상그룹(GNS)로 구분되어 있다. 상품협상그룹은 다시 시장개방분야, GATT 규율분야, 신상품분야 등으로 나뉘어 14개 세부협상 그룹이 있으며, 서비스협상 그룹은 상품협상그룹과 별도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담당하고 있다. 각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회의에 상정되고 TNC회의에서는 각 협상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고 그룹간의 조정을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12)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12)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12)

세계 육류 수급 및 교역 전망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 12)*

성명환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 2006년 후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중립종 쌀가격을 제외한 국제 곡물가격은 2008년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하였다.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2008년 12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8.7% 상승한 톤당 1,10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0.3% 상승한 톤당 553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08년 12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2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8.7% 상승한 톤당 1,10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0.3% 상승한 톤당 553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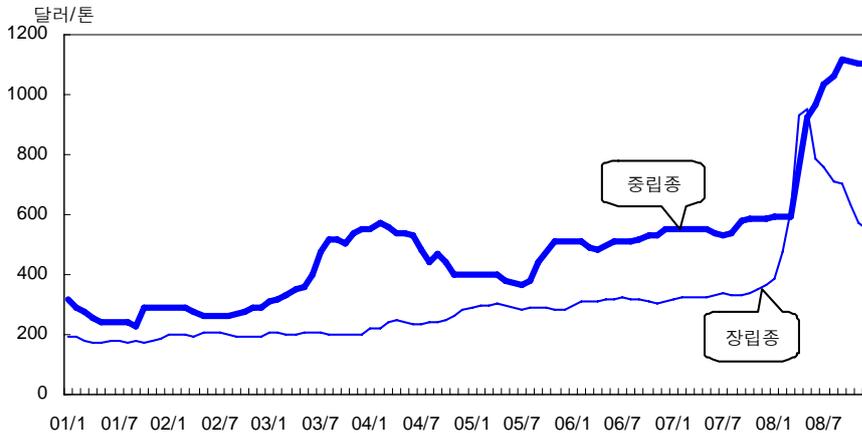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10월에는 1,124달러까지 상승했으며 2008년 12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88.7% 상승한 톤당 1,10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에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0.3% 상승, 전월대비 3.7% 하락한 톤당 553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제 쌀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가 증대하여 수출 공급량이 부족하고,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의 자국 쌀 수요가 늘면서 수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장립종 쌀가격은 2008년 5월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립종 쌀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6/07	2007/08	2007.12	2008.11	2008.12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 국	CA 중립종 ¹⁾	538	694	584	1,102	1,102	88.7	0.0
	남부 장립종 ¹⁾	407	621	496	664	637	28.4	△4.1
태 국 ²⁾		320	551	368	574	553	50.3	△3.7
베 트 남 ³⁾		292	629	-	413	413	-	0.0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자료: USDA(Rice Outlook).

옥수수 운임포함가격

최근 선임의 급격한 하락으로 2008년 12월 12일 현재 각 곡물의 운임포함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190달러, 대두가 톤당 371달러, 대두박이 톤당 338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 12일 현재 톤당 190달러로 이는 전년 동월대비 38.9%, 전월대비 7.8% 하락한 수준이다.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톤당 70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2월 12일 현재 톤당 37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2.9%, 전월대비 4.1% 하락한 수준이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 12일 현재 톤당 338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1.3%, 전월대비 3.4%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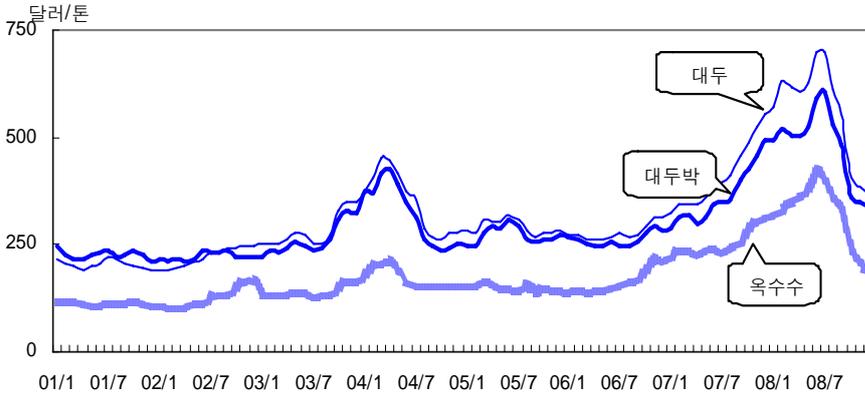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6	2007	2007.12	2008.11	2008.12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164	252	311	206	190	△38.9	△7.8
대 두	278	410	553	387	371	△32.9	△4.1
대 두 박	261	362	492	350	338	△31.3	△3.4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12월 12일 기준 가격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12월 12일 기준 가격

2. 국제 선물가격

2008년 12월 12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44.3% 하락한 톤당 195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6.5% 하락한 톤당 142달러, 2009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5.8% 하락한 톤당 314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12월 12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9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44.3%, 전월대비 6.7% 하락하였다. 2008/09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소맥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맥가격은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

2008년 12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195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142달러, 2009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314달러이다.

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 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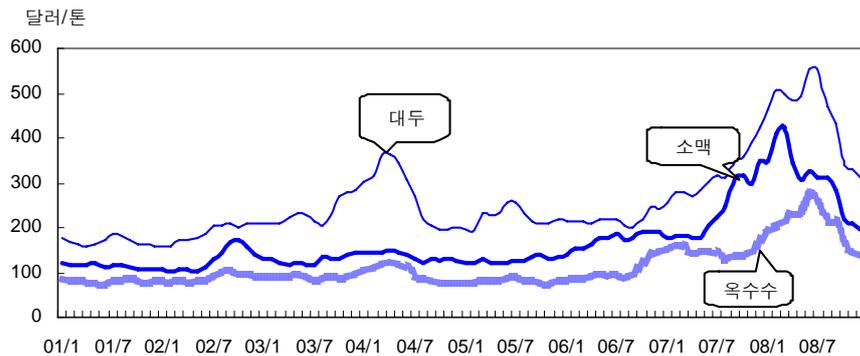
2008년 12월 12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42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6.5%, 전월대비 3.4% 하락하였다. 2008/09년도 옥수수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고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12월 12일 현재 2009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314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5.8%, 전월 대비 5.1% 하락하였다. 대두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6/07	2007/08	2007.12	2008.11	2008.12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 ¹⁾	181	315	350	209	195	△44.3	△6.7
옥 수 수 ²⁾	140	203	170	147	142	△16.5	△3.4
대 두 ²⁾	267	462	423	331	314	△25.8	△5.1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8년 12월 12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연도 ¹⁾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²⁾		태국		소맥 ³⁾	옥수수 ⁴⁾	대두 ⁴⁾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1	315	203	462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 <http://www.ams.usda.gov/mnreports/lscd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 12)*

성명환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8/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2억 1,597만 톤, 소비량은 3.2% 증가한 21억 7,589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11.3% 늘어난 3억 9,375만 톤, 기말재고율은 18.1%로 전망되었다.

1. 전세계 곡물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2억 1,597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1억 7,589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2억 1,59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5,367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5억 6,964만 톤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약 1억 800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2008/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3.2% 증가한 21억 7,589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5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전년보다 1.9% 감소한 2억 6,13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가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3억 9,375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07/08년도보다 1.3% 포인트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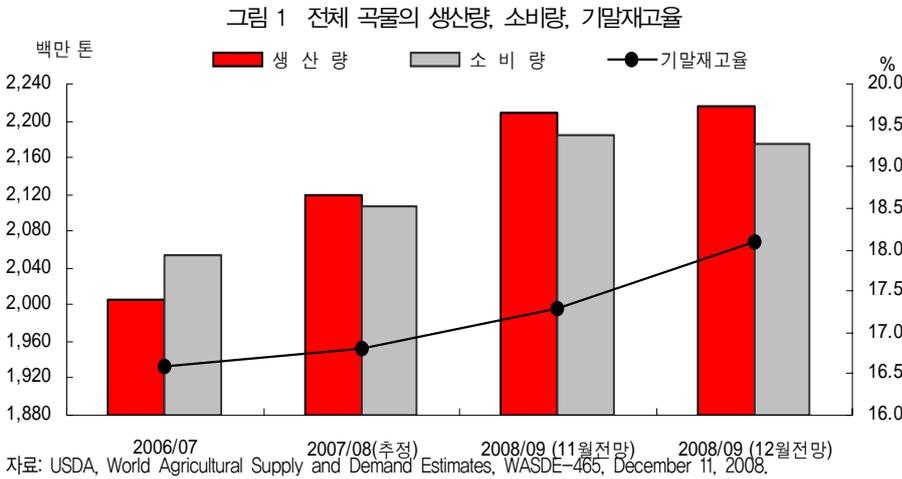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05.49	2,120.38	2,208.37	2,215.97	4.5	0.3
공 급 량	2,394.08	2,461.53	2,560.28	2,569.64	4.4	0.4
소 비 량	2,052.92	2,107.87	2,183.51	2,175.89	3.2	△0.3
교 역 량	259.91	269.45	264.28	261.38	△3.0	△1.1
기말재고량	341.16	353.67	376.77	393.75	11.3	4.5
기말재고율(%)	16.6	16.8	17.3	1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2. 쌀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08년도보다 0.8% 증가한 4억 3,459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3.2%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억 3,233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792만 톤보다 약 44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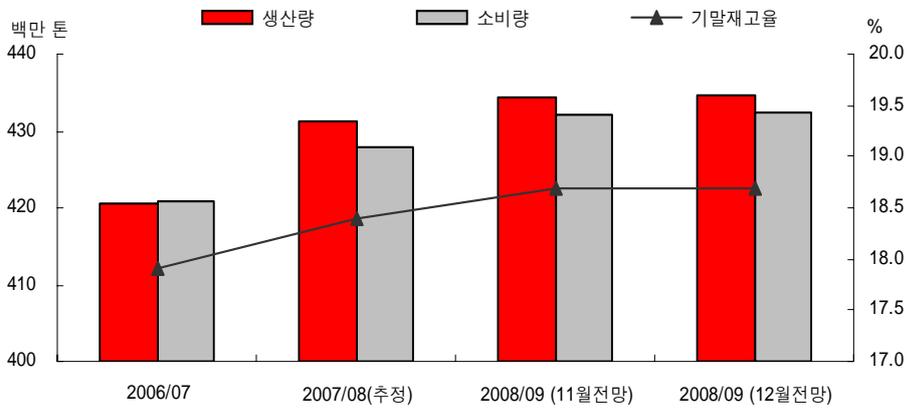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4억 3,459만 톤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4억 3,233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8/09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2,988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이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1.6% 줄어든 2,98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9.5%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5%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1.8%, 베트남 17.4%, 미국이 11.3%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8,085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도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도보다 약 0.3% 포인트 상승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20.2% 줄어든 75만 톤으로 예상되며 베트남도 23.0%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3.0%, 4.6%, 5.1%, 10.0%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20.60	431.14	434.28	434.59	0.8	0.1
공 급 량	496.28	506.52	512.67	513.18	1.3	0.1
소 비 량	420.90	427.92	432.06	432.33	1.0	0.1
교 역 량	31.30	30.37	29.85	29.88	△1.6	0.1
기말재고량	75.38	78.59	80.61	80.85	2.9	0.3
기말재고율(%)	17.9	18.4	18.7	18.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3. 소맥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2.0% 증가한 6억 8,39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보다 6.1% 증가한 6억 5,59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21.2%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1억 2,338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20.9% 줄어든 2,722만 톤이지만 전체 수출량의 22.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17.9% 늘어난 1,900만 톤, EU도 전년보다 55.4% 늘어난 1,900만 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4,735만 톤으로 전년보다 23.5%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104.0%, 51.8%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3%에서 22.5%로 3.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6억 8,398만 톤, 소비량은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가 늘어나 6억 5,59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6.20	610.60	682.37	683.98	12.0	0.2
공 급 량	743.84	737.61	801.76	803.37	8.9	0.2
소 비 량	616.83	618.25	656.51	655.99	6.1	△0.1
교 역 량	111.20	115.38	123.98	123.38	6.9	△0.5
기말재고량	127.01	119.36	145.25	147.35	23.5	1.4
기말재고율(%)	20.6	19.3	22.1	22.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8% 줄어든 7억 8,59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EU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7억 8,987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중국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각각 1.6%,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0.8% 감소한 7억 8,59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7억 8,987만 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40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줄어들어 15.7%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008/09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40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8/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5.7% 감소한 8,039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9%, 13.1%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7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26.1% 감소하고 아르헨티나의 수출량도 30.0%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1% 감소한 1억 2,38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50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2008/09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줄어들어 15.7%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12.47	792.26	781.36	785.90	△0.8	0.6
공 급 량	837.09	901.08	907.83	913.70	1.4	0.6
소 비 량	728.27	773.28	797.71	789.87	2.1	△1.0
교 역 량	93.80	95.35	82.33	80.39	△15.7	△2.4
기말재고량	108.82	127.80	110.12	123.83	△3.1	12.5
기말재고율(%)	14.9	16.5	13.8	15.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4, November 10, 2008.

5. 대두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465만 톤, 소비량은 2억 3,25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2.8%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465만 톤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이 각각 9.2%, 9.3%, 2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7/08년 2억 2,957만 톤보다 300만 톤 늘어난 2억 3,25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3.7%,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3.0% 감소한 7,70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37.1%, 브라질이 32.8%, 아르헨티나가 19.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89.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9.6%, 0.4% 줄어드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6.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5,419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310만 톤과 비교하여 2.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23.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37.33	220.86	235.74	234.65	6.2	△0.5
공 급 량	290.41	283.54	288.78	287.75	1.5	△0.4
소 비 량	225.28	229.57	233.96	232.58	1.3	△0.6
교 역 량	71.50	79.48	77.87	77.08	△3.0	△1.0
기말재고량	62.68	53.10	54.06	54.19	2.1	0.2
기말재고율(%)	27.8	23.1	23.1	23.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6. 대두박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5,899만 톤, 소비량은 1억 5,834만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0.6%, 0.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8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0.4% 증가한 5,598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아르헨티나 49.0%, 브라질 22.2%, 미국이 13.6%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은 8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88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5.0%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3.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0.6%, 소비량은 0.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 비중이 84.8%에 이를 전망이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0	2008.1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3.78	158.09	160.10	158.99	0.6	△0.7
공 급 량	159.88	164.37	166.82	165.18	0.5	△1.0
소 비 량	151.82	157.12	159.39	158.34	0.8	△0.7
교 역 량	54.27	55.75	56.15	55.98	0.4	△0.3
기말재고량	6.28	6.19	6.42	5.88	△5.0	△8.4
기말재고율(%)	4.1	3.9	4.0	3.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6.28	506.52	512.67	513.18	1.3	0.1
기초재고량	75.68	75.38	78.39	78.59	4.3	0.3
생산량	420.60	431.14	434.28	434.59	0.8	0.1
미국	6.24	6.31	6.51	6.51	3.2	0.0
태국	18.25	19.30	19.50	19.50	1.0	0.0
베트남	22.92	24.38	23.50	23.50	△3.6	0.0
인도네시아	35.30	35.80	36.25	36.25	1.3	0.0
중국	127.20	130.22	130.90	130.90	0.5	0.0
일본	7.79	7.93	8.00	8.00	0.9	0.0
수입량	28.22	27.08	26.78	27.37	1.1	2.2
인도네시아	2.00	0.50	0.80	0.80	60.0	0.0
중국	0.47	0.30	0.33	0.33	10.0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20.90	427.92	432.06	432.33	1.0	0.1
미국	4.07	3.95	4.02	4.02	1.8	0.0
태국	9.78	9.60	9.50	9.50	△1.0	0.0
베트남	18.78	19.51	19.04	19.04	△2.4	0.0
인도네시아	35.90	36.55	36.85	36.85	0.8	0.0
중국	127.20	127.50	128.00	128.00	0.4	0.0
일본	8.25	8.15	8.23	8.23	1.0	0.0
수출량	31.30	30.37	29.85	29.88	△1.6	0.1
미국	2.92	3.45	3.42	3.39	△1.7	△0.9
태국	9.56	10.00	9.50	9.50	△5.0	0.0
베트남	4.52	4.75	5.20	5.20	9.5	0.0
기말재고량	75.38	78.59	80.61	80.85	2.9	0.3
미국	1.27	0.94	0.81	0.75	△20.2	△7.4
태국	2.51	2.22	2.73	2.73	23.0	0.0
베트남	1.39	1.91	1.47	1.47	△23.0	0.0
인도네시아	4.61	4.36	4.56	4.56	4.6	0.0
중국	35.92	37.94	39.87	39.87	5.1	0.0
일본	2.41	2.69	2.96	2.96	1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3.84	737.61	801.76	803.37	8.9	0.2
기초재고량	147.64	127.01	119.39	119.39	△6.0	0.0
생산량	596.20	610.60	682.37	683.98	12.0	0.2
미국	49.32	56.25	68.03	68.03	20.9	0.0
호주	10.82	13.04	20.00	20.00	53.4	0.0
캐나다	25.27	20.05	27.30	28.61	42.7	4.8
EU27	124.87	119.43	150.60	150.90	26.4	0.2
중국	108.47	109.30	113.00	113.00	3.4	0.0
러시아	44.90	49.40	63.00	63.00	27.5	0.0
수입량	113.60	112.42	121.83	121.70	8.3	△0.1
EU27	5.14	6.93	5.00	5.00	△27.8	0.0
브라질	7.62	7.00	7.00	7.00	0.0	0.0
북아프리카	16.30	21.67	20.20	20.20	△6.8	0.0
파키스탄	0.07	1.49	2.50	2.50	67.8	0.0
인도	6.72	1.88	0.00	0.00	△100.0	0.0
러시아	0.86	0.34	0.40	0.40	17.6	0.0
소비량	616.83	618.25	656.51	655.99	6.1	△0.1
미국	31.04	29.00	35.44	35.16	21.2	△0.8
EU27	125.50	117.74	131.50	131.50	11.7	0.0
중국	102.00	104.00	107.00	107.00	2.9	0.0
파키스탄	21.90	22.40	22.60	22.60	0.9	0.0
러시아	36.40	37.70	43.50	43.50	15.4	0.0
수출량	111.20	115.38	123.98	123.38	6.9	△0.5
미국	24.73	34.40	27.22	27.22	△20.9	0.0
캐나다	19.43	16.12	18.50	19.00	17.9	2.7
EU27	13.87	12.23	19.00	19.00	55.4	0.0
기말재고량	127.01	119.36	145.25	147.35	23.5	1.4
미국	12.41	8.32	16.42	16.97	104.0	3.3
EU27	14.03	10.42	15.52	15.82	51.8	1.9
중국	38.45	40.96	44.99	44.99	9.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37.09	901.08	907.83	913.70	1.4	0.6
기초재고량	124.62	108.82	126.47	127.80	17.4	1.1
생산량	712.47	792.26	781.36	785.90	△0.8	0.6
미국	267.60	332.09	305.32	305.32	△8.1	0.0
아르헨티나	22.50	20.85	18.00	18.00	△13.7	0.0
EU27	53.83	47.52	59.49	60.92	28.2	2.4
멕시코	22.35	22.65	24.00	24.00	6.0	0.0
동남아시아	16.81	18.69	18.45	18.45	△1.3	0.0
중국	151.60	152.30	156.00	160.00	5.1	2.6
수입량	91.01	96.48	80.43	79.69	△17.4	△0.9
이집트	4.83	4.15	4.30	4.30	3.6	0.0
EU27	7.06	13.50	2.00	2.00	△85.2	0.0
일본	16.71	16.61	16.50	16.50	△0.7	0.0
멕시코	8.94	9.56	9.00	9.00	△5.9	0.0
동남아시아	3.96	3.15	3.80	3.80	20.6	0.0
한국	8.74	9.32	7.20	7.20	△22.7	0.0
소비량	728.27	773.28	797.71	789.87	2.1	△1.0
미국	230.77	262.59	270.14	263.79	0.5	△2.4
EU27	62.30	63.00	60.50	60.50	△4.0	0.0
일본	16.50	16.50	16.50	16.50	0.0	0.0
멕시코	30.70	32.00	32.50	32.50	1.6	0.0
동남아시아	20.70	21.30	21.88	21.88	2.7	0.0
한국	8.83	8.64	7.30	7.30	△15.5	0.0
중국	145.00	149.00	158.00	158.00	6.0	0.0
수출량	93.80	95.35	82.33	80.39	△15.7	△2.4
미국	53.99	61.87	48.26	45.72	△26.1	△5.3
아르헨티나	15.31	15.00	10.50	10.50	△30.0	0.0
중국	5.27	0.55	0.50	0.50	△9.1	0.0
기말재고량	108.82	127.80	110.12	123.83	△3.1	12.5
미국	33.11	41.26	28.55	37.44	△9.3	31.1
아르헨티나	1.66	0.56	0.51	0.56	0.0	9.8
EU27	7.38	4.90	3.89	5.32	8.6	36.8
중국	36.60	39.39	36.99	40.99	4.1	10.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90.41	283.54	288.78	287.75	1.5	△0.4
기초재고량	53.08	62.68	53.04	53.10	△15.3	0.1
생산량	237.33	220.86	235.74	234.65	6.2	△0.5
미국	86.77	72.82	79.49	79.49	9.2	0.0
아르헨티나	48.80	46.20	50.50	50.50	9.3	0.0
브라질	59.00	61.00	60.00	59.00	△3.3	△1.7
중국	15.97	14.00	16.80	16.80	20.0	0.0
수입량	69.05	78.60	77.11	76.10	△3.2	△1.3
중국	28.73	37.82	36.00	36.00	△4.8	0.0
EU27	15.29	15.10	14.15	14.15	△6.3	0.0
일본	4.09	4.01	4.05	4.00	△0.2	△1.2
소비량	225.28	229.57	233.96	232.58	1.3	△0.6
미국	53.24	51.53	51.92	51.10	△0.8	△1.6
아르헨티나	35.09	36.16	37.79	37.49	3.7	△0.8
브라질	34.02	34.82	35.10	34.51	△0.9	△1.7
중국	46.12	49.82	51.87	51.87	4.1	0.0
EU27	16.09	16.11	14.86	14.86	△7.8	0.0
일본	4.31	4.22	4.26	4.26	0.9	0.0
멕시코	3.93	3.74	3.74	3.74	0.0	0.0
수출량	71.50	79.48	77.87	77.08	△3.0	△1.0
미국	30.39	31.60	27.76	28.58	△9.6	3.0
아르헨티나	9.56	13.83	15.20	14.70	6.3	△3.3
브라질	23.49	25.36	25.70	25.25	△0.4	△1.8
기말재고량	62.68	53.10	54.06	54.19	2.1	0.2
미국	15.62	5.58	5.58	5.58	0.0	0.0
아르헨티나	22.61	21.77	22.77	22.78	4.6	0.0
브라질	18.19	19.16	18.35	18.50	△3.4	0.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0	2008.1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9.88	164.37	166.82	165.18	0.5	△1.0
기초재고량	6.10	6.28	6.72	6.19	△1.4	△7.9
생산량	153.78	158.09	160.10	158.99	0.6	△0.7
미국	39.06	38.32	37.64	36.96	△3.5	△1.8
아르헨티나	26.06	27.07	28.31	28.10	3.8	△0.7
브라질	24.11	24.69	24.88	24.41	△1.1	△1.9
인도	5.28	6.39	6.31	6.66	4.2	5.5
중국	28.09	30.86	32.39	32.39	5.0	0.0
수입량	52.49	54.69	55.13	55.02	0.6	△0.2
EU27	22.18	23.90	22.80	22.80	△4.6	0.0
중국	0.03	0.20	0.20	0.20	0.0	0.0
소비량	151.82	157.12	159.39	158.34	0.8	△0.7
미국	31.18	30.08	29.98	29.48	△2.0	△1.7
아르헨티나	0.59	0.62	0.66	0.65	4.8	△1.5
브라질	11.12	12.05	12.79	12.49	3.7	△2.3
인도	1.85	1.92	1.84	1.84	△4.2	0.0
EU27	33.19	34.99	33.32	33.32	△4.8	0.0
중국	27.26	30.43	31.99	31.99	5.1	0.0
수출량	54.27	55.75	56.15	55.98	0.4	△0.3
미국	7.99	8.42	7.80	7.62	△9.5	△2.3
아르헨티나	25.63	26.80	27.66	27.42	2.3	△0.9
브라질	12.72	12.14	12.50	12.40	2.1	△0.8
인도	3.46	4.79	4.45	4.80	0.2	7.9
기말재고량	6.28	6.19	6.42	5.88	△5.0	△8.4
미국	0.31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52	1.17	1.55	1.20	2.6	△22.6
브라질	1.91	2.59	2.48	2.28	△12.0	△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ember 11, 2008.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¹⁾	소비량 ²⁾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549	239,408	205,292	25,991	34,116	16.6
2007/08(E)	212,038	246,153	210,787	26,945	35,367	16.8
2008/09(P)	221,597	256,964	217,589	26,138	39,375	18.1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 12)*

이 형 우

지난 12월 18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은 2009년 계란 생산량 증가와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생산량 감소를 전망하였다.

1. 쇠고기

곡물 및 사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손실 발생

사료곡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쇠고기 산업분야가 손실을 보고 있다.

사료곡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쇠고기 산업분야가 손실을 보고 있다. 세계 밀 수요 감소 및 수확에 따른 공급증가로 지난 몇 달간 밀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의 미국산 옥수수 수요 역시 감소하였다.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에탄올 수요 감소로 미국내 옥수수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곡물 가격이 하락해도 비육 밀소 가격하락으로 즉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는 비육 밀소(송아지) 가격 하락은 국내 및 해외의 쇠고기 수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옥수수 가격, 송아지 가격, 비육우 가격을 볼 때 현재 비육장에서 사육중인 소가 시장에 출하되는 2009년 봄에는 어느 정도의 이윤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8년 11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lhw0906@krei.re.kr, 02-3299-4309)

2008년 8월 이후 비육우 사육두수는 2007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다음 분기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10월 이후부터 비육에 들어간 저체중우(600파운드 이하)보다 9월부터 비육에 들어간 고체중우(800파운드 이상)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체중우는 보통 130~160일 정도 비육을 시킨 뒤에 시장에 출하되지만, 저체중우는 내년 여름까지 비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봄에 출하되는 소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축두수 증가로 경산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에서 수입된 비육용 암소 도축이 크게 증가하였다. 환율변동으로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암소가격은 추가가격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비육우 가격 하락으로 부산물, 지육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소가죽의 경우 공급과잉 및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피혁제품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가죽은 부산물 가격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월 평균 소매가격은 파운드당 4.53달러로 2008년 8월 가격과 근접하였다. 9월 및 10월에는 파운드당 4.51달러, 11월에는 파운드당 4.43달러로 8월보다 약 2% 낮은 값을 보였다.

쇠고기 교역

3분기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5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나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10~11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였다. 10월 수출량은 전년보다 29%가 증가한 1억 7,600만 파운드였으나 9월보다는 12%가 감소한 수치이다. 멕시코의 축제로 과거 5년 동안 10월 총 수출량은 9월보다 많았으나, FAS 주간 수출 동향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의 10월 쇠고기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11월 수입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4분기 수출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수출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18억 6,0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11월 하순부터 한국의 대형 유통점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들 대형 유통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로 판매를 주저하였으나, 판매개시 이후 많은 양의 쇠고기가 판매되었다. 대형 유통점의 판매개시로 한국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 이후 냉동 창고에는 수입된 쇠고기가 포화상태로 들어있어 추가적인 판매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위축과 한국원화 가치 하락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19억 2,000만 파운드로 전망되는데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출은 적은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쇠고기 생산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강세로 내년도 쇠고기 수출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시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오세아니아 및 남미산 쇠고기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1억 2,000만 파운드로 전망되는데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출은 적은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7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19% 감소했고, 2008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24억 5,200만 파운드로 예상되는데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작은 수치이다.

캐나다산 암소 수입 증가로 미국의 암소도축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육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쇠고기 생산량의 가공육(햄버거 패티용) 공급이 증가하였다.

달러화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가공품의 가격이 저렴해졌다. 이러한 달러가치 변동으로 수입 쇠고기는 더욱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25억 9,500만 파운드로 전망되는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미국의 암소 도축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입량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쇠고기 수요 감소로 2009년 외국의 쇠고기 가격은 2008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쇠고기 수요로 수출업자들이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요가 쇠고기 가격 하락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였으나, 2009년에는 신흥 쇠고기 수입국의 수요 감소로 외국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욱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캐나다산 경산우 수입증가, 거세우 및 미경산우 수입 감소

2008년 미국의 생우 수입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220만 두, 2009년에는 2008년보다 5% 감소한 210만 두로 전망된다.

2008년 미국의 생우 수입은 전년보다 12% 감소한 220만 두, 2009년에는 2008년보다 5% 감소한 210만두로 전망된다. 11월 캐나다산 도축용 경산우 수입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암소도축두수가 증가하였다. 11월 도축된 비거세우 및 경산우 중 14%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 11월부터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생우 수입이 허용되었다.

10~11월 거세우 및 미경산우 도축 및 캐나다산 비육밀소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2007년 4분기에 수입이 증가한 비육밀소는 2008년 여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9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이것은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캐나다산 생우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비육 밀소는 캐나다에 남아있으며, 그에 따라 10~11월 캐나다의 비육우 두수는 증가하였다. 같은 이유로 9월 이후 캐나다산 비육우 및 미경산우 생우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

11월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계절적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나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2월 6일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수치이다.

2. 낙농

사료비는 2009년에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낙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가격이 하락하여 조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유사비(우유가격/사료비)는 1.9로 낮게 전망되어 사육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3.65~4.35달러로 전망되고, 대두 가격은 톤당 240~300달러로 전망된다.

2009년 젖소 사육두수는 924만 5천두로 전망되어 2008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두당 산유량은 20,700파운드로 2008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두당 산유량 증가로 2009년 원유 생산량은 2008년보다 약간 증가한 1,91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와 국내외 유제품 수요 감소로 2009년 유제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원유 사용량은 전년 동월보다 2.7% 증가했다. 특히 버터 생산시 원유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에도 원유 사용량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제 유제품 수요는 경기 침체로 2009년에 약세를 보일 전망이고 미국, 유럽연합,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생산 증가로 유제품 공급량은 2009년에 증가할 전망이다.

달러화 강세는 미국 유제품 수출에 있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2009년 탈지분유 수출량은 235억 파운드로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일 전망이며 전지분유 수출량은 2008년 91억 파운드에서 2009년 67억 파운드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수출 약세와 원유 생산량 증가로 2009년 유제품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2008년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890~1.900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파운드당 1.655~1.735달러로 2008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008년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420~1.450달러, 2009년에는 1.265~1.375달러로 전망된다. 분유 가격은 내년에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탈지분유 가격은 2008년 파운드당 1.215~1.235달러에서 2009년 87.5~93.5센트로 하락할 전망이다. 유장 분말 가격은 2008년 파운드당 24.5~25.5센트, 2009년에는 다소 상승한 19.0~22.0센트로 전망된다.

낮은 유제품 가격은 2009년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08년 원유 III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17.40~17.50달러, 2009년에는 14.50~15.30달러로 전망된다. 원유 IV등급 가격은 2008년 100파운드당 14.55~14.95달러, 2009년 10.75~11.65달러로 전망된다. 2008년 평균 원유 가격은 100파운드당 18.30~18.40달러에서 2009년 14.95~15.75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다.

3. 양돈

미국 농무부는 2008년 3분기 수출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고 미국의 돼지고

사료비는 2009년에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낙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가격이 하락하여 조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무부는 2008년 3분기 수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고 미국의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9년 돼지고기 수출량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다.

기 주요 수출국들의 2009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4분기, 2009년 돼지고기 수출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2009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8년보다 14% 감소하지만, 2007년보다 30% 증가한 4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10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한 3억 9,200만 파운드였으며, 2008년 1~10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한 40억 파운드였다. 미국은 주로 일본, 멕시코, 홍콩, 러시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8월에 올림픽 게임이 끝나고 중국 내 돼지 사육 상황이 호전되어 중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8월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08년 1~10월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 중에서 일본으로의 수출량 비중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 중 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국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2008년 10월	2007년 10월	증감률 (08/07)	2008년 1~10월	2007년 1~10월	증감률 (08/07)	08년 기준 수출비중	07년 기준 수출비중
일본	120	92	31	1,117	892	25	28	36
멕시코	70	40	75	530	360	47	13	14
홍콩	32	19	68	452	87	422	3	11
러시아	42	35	20	400	182	119	10	7
중국	5	33	-84	348	176	97	9	7
캐나다	34	35	-4	345	292	18	9	12
한국	23	21	10	257	202	27	6	8
유럽연합	14	8	80	127	47	172	3	2
호주	14	6	127	86	65	33	2	3
계	392	313	25	4,011	2,495	61	-	-

자료: USDA/ERS, <http://www.ers.usda.gov/data/meattrade/>
<http://www.ers.usda.gov/data/meattrade/>

4. 닭고기

2008년 10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한 32억 7천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닭고기 생산량 감소세의 시작으로 보인다. 1~10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313억 파운드였다. 10월 닭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으며 평균 생체중(5.65파운드)이 전년보다 0.7%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10월 평균 생체중은 5.58파운드로 2007년 동기대비 1.7% 증가했다. 최근 몇 주간의 병아리 생산 감소는 11, 12월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 3분기까지의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8일~12월 6일까지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대비 7.4% 감소하였다. 미국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러한 병아리 생산 감소 추세는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아리 생산량 감소로 2008년 4분기와 2009년 3분기까지의 닭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한 90억 파운드,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13억 파운드 감소한 365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3분기 말 냉동 닭고기 재고는 7억 3천만 파운드로 2분기보다 다소 감소하는 수치이지만 2007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것이다. 냉동 재고량은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점차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재고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4분기 미국 내 닭고기 산업은 생산량, 수출, 재고량 등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1월 통닭 가격만 유일하게 전년 동월대비 9% 상승한 파운드당 78.5센트였다. 북동부 시장의 빼 없는 가슴살 가격은 파운드당 100.5센트, 1/4 다리살 가격은 평균 파운드당 30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각각 19%, 29% 하락하였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닭고기 수출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3분기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한 19억 1천만 파운드였으나 4분기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6%, 3분기보다는 20% 감소한 15억 3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11월, 12월 닭고기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8월에 파운드당 55.5센트로 정점을 찍은 후 10월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11월 1/4 다리살 가격은 수출량 감소로 30센트까지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닭고기 수출량은 2008년보다 8.6% 감소한 61억 5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8년 4분기 미국 내 닭고기 산업은 생산량, 수출, 재고량 등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 계란

10월 산란용 마리수는 전년보다 1.9% 감소한 2억 8천만 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8년 말과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초 산란용 마리수는 2억 8천만 수로 전년보다 5백만 수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사료비와 연료비 하락으로 산란용 마리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비 감소의 유리함은 계란 수요 감소라는 불리함과 상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용 마리수 감소로 계란 생산량은 지난 7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계란 생산량 감소는 가격 강세로 이어졌다. 2008년 3분기 뉴욕 계란 도매가격은 1.15\$(대란 12개들이)로 2분기 대비 3센트, 2007년 동기보다 5센트 하락하였다. 4분기 계란 도매가격은 1.19~1.22\$로 3분기보다 상승하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사료비와 연료비 하락으로 산란용 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수요 감소라는 불리함과 상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1~10월 계란 수출량은 2007년 동기간보다 17% 감소한 1억 7천 6백 만판이었다. 이러한 계란 수출 감소의 원인은 미국내 계란 가격의 상승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멕시코, 홍콩 등으로의 수출 감소에 기인한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LDP-M-174/Dec 18, 2008 발췌정리

표 2 U. S. 육류 및 가공육 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26,421	6,371	6,897	6,911	6,410	26,589	6,260	6,770	6,970	26,540
-돼지고기	21,943	6,023	5,593	5,633	6,170	23,419	5,920	5,480	5,550	23,125
-양고기	183	46	43	41	42	172	43	44	40	169
-닭고기	36,126	9,108	9,432	9,455	9,000	36,995	8,800	9,250	9,275	36,525
-칠면조고기	5,958	1,541	1,565	1,571	1,575	6,252	1,495	1,510	1,510	6,070
-전체 육류	91,264	23,258	23,712	23,796	23,368	94,134	22,688	23,219	23,516	93,101
-계란, 백만판/12개	6,435	1,590	1,581	1,601	1,630	6,402	1,580	1,580	1,610	6,42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쇠고기	65.2	15.6	16.3	15.7	15.1	62.7	15.0	15.9	16.1	62.1
-돼지고기	50.8	12.6	11.7	12.0	13.1	49.3	13.0	12.4	12.0	50.2
-양고기	1.1	0.3	0.3	0.2	0.3	1.0	0.3	0.2	2.0	1.0
-닭고기	85.4	21.2	21.4	21.0	20.8	84.4	20.4	21.2	21.5	83.9
-칠면조고기	17.5	4.0	4.1	4.3	5.5	17.8	4.1	4.3	4.2	17.7
-전체 육류	221.6	54.0	54.2	53.8	55.1	217.1	53.0	54.4	54.4	216.6
-계란, 개수(백만더즌)	250.1	61.8	61.3	61.9	63.3	248.3	60.9	60.3	61.5	245.7
시장가격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91.82	89.59	92.82	98.45	89-90	92.59	90-94	91-99	93-101	92-99
-비육필스(Ok City,\$/cwt)	108.23	99.88	106.60	110.81	94-96	102.95	98-102	101-109	104-112	102-110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cwt)	52.12	53.88	57.30	61.78	46-50	55.12	49-53	51-55	53-57	51-55
-초이스급 양고기(San Angelo,\$/cwt)	84.93	86.23	79.62	88.83	85-87	85.05	88-88	86-90	82-90	81-91
-돼지고기(N. base, l.e. \$/cwt)	47.09	39.64	52.51	57.27	41-42	47.73	46-48	49-53	51-55	48-52
-닭고기(12도시, cents/lb)	76.40	78.10	80.60	80.60	79-880	79.70	80-84	81-87	82-88	81-87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82.10	77.4	88.90	96.50	88-89	87.80	77-81	84-90	90-98	85-91
-계란(뉴욕, cents/doz)	114.4	158.8	117.30	114.50	119-122	127.80	122-128	116-126	113-123	119-127
교역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수출량	1,431	360	471	609	420	1,860	425	505	500	1,920
-쇠고기 수입량	3,052	637	661	584	570	2,452	605	685	670	2,595
-양고기 수입량	202	52	48	38	49	186	50	43	40	181
-돼지고기 수출량	3,138	1,106	1,387	1,126	1,150	4,769	900	950	1,000	4,100
-돼지고기 수입량	968	217	205	191	200	813	220	210	205	850
-닭고기 수출량	5,771	1,507	1,787	1,912	1,525	6,731	1,475	1,550	1,525	6,150
-칠면조 고기 수출량	553	148	160	186	160	654	135	145	160	605
-모든 수입두수(천두)	10,005	2,915	2,149	2,201	1,950	9,215	1,850	1,850	1,750	7,2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낙농업 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간
젖소 (천두)	9,158	9,249	9,274	9,277	9,265	9,266	9,260	9,250	9,240	9,246
두당 산유량 (파운드)	20,267	5,140	5,249	5,048	5,030	20,467	5,155	5,325	5,110	20,700
유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185.6	47.5	48.7	46.8	46.6	189.7	47.7	49.3	47.2	191.4
- 농가소모분	1.2	0.3	0.3	0.3	0.3	1.2	0.3	0.3	0.3	1.2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3	188.5	47.4	49.0	46.9	190.2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3	188.5	47.4	49.0	46.9	190.2
- 연초 재고량	9.5	10.4	12.1	13.6	11.5	10.4	9.5	11.0	12.8	9.5
- 수입량	4.6	1.0	0.7	0.7	0.8	3.2	0.9	0.7	0.8	3.4
- 총공급량	198.6	58.6	61.3	60.8	59.0	202.1	57.8	60.7	60.4	203.1
- 수출량	5.7	2.2	2.5	2.5	1.9	9.1	1.8	1.7	1.6	6.7
- 연말 재고량	10.4	12.1	13.6	11.5	9.5	9.5	11.0	12.8	11.1	9.1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2.5	44.2	45.1	46.9	47.2	184.4	45.0	46.2	47.7	187.2
전지방유 (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3	188.5	47.4	49.0	46.9	190.2
- 연초 재고량	9.1	9.9	10.1	10.6	10.2	9.9	10.2	10.0	10.6	10.2
- 수입량	4.4	1.0	0.8	0.8	0.8	3.4	0.8	0.8	0.8	3.4
- 총공급량	198.0	58.1	59.3	58.0	57.3	201.8	58.5	59.7	58.3	203.8
- 수출량	24.5	6.7	7.6	6.9	5.3	26.5	6.0	5.9	5.8	23.5
- 연말 재고량	9.9	10.1	10.6	10.2	10.2	10.2	10.0	10.6	10.1	10.0
- 소모분	0.0	0.0	0.0	0.0	1.1	1.1	1.0	0.7	0.0	1.7
- 집유량	163.6	41.4	41.1	40.9	40.7	164.1	41.5	42.4	42.4	168.7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19.13	19.23	18.57	18.67	16.90	18.30	14.80	14.40	14.80	14.95
					-17.10	-18.40	-15.30	-15.20	-15.80	-15.75
- III 등급	18.04	18.12	18.40	17.28	15.86	17.40	14.19	14.42	14.72	14.50
					-16.06	-17.50	-14.69	-15.22	-15.72	-15.30
- IV 등급	18.36	15.04	15.25	16.23	11.95	14.55	10.02	10.09	11.17	10.75
					-12.25	-14.75	-10.62	-10.99	-12.27	-11.65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738	1.933	1.977	1.869	1.793	1.890	1.635	1.650	1.663	1.655
					-1.813	-1.900	-1.685	-1.730	-1.763	-1.735
- 유장 분말	0.600	0.305	0.267	0.243	0.180	0.245	0.172	0.185	0.205	0.190
					-0.200	-0.255	-0.202	-0.215	-0.235	-0.220
- 버터	1.344	1.230	1.411	1.575	1.508	1.420	1.183	1.198	1.325	1.265
					-1.548	-1.450	-1.263	-1.308	-1.455	-1.375
- 탈지방유	1.708	1.364	1.300	1.334	0.898	1.215	0.830	0.830	0.895	0.875
					-0.918	-1.235	-0.870	-0.890	-0.965	-0.935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4 생산 지표

구 분	단위	2007. 11	2008		
			9	10	11
비육우					
사육두수 /*	1,000 두	11,769	9,997	10,415	10,972
입식두수	1,000 두	2,068	2,230	2,371	1,948
출하두수	1,000 두	1,738	1,812	1,814	1,575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32,225	638,539	606,189	585,025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760,033	756,565	742,121	705,587
총계수수	1,000 수	55,964	54,395	53,153	53,311
6개월 미만 총계수수 /1	1,000 수	7,606	6,886	6,839	7,221
총계 도태수수 /2	1,000 수	6,212	7,755	7,919	6,400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31,146	28,390	28,679	27,490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4,755	22,515	22,165	21,272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37.6	523.4	546.2	539.3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85,080	278,225	277,299	280,880
산란율 /1	%	74.9	75.0	75.7	75.7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36,232	36,428	39,998	36,607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4,502	5,204	5,857	4,820

주: 1) /* 조사대상은 1,000 두 이상 사육농가임.
 2) /1 월초 기준임.
 3) /2 월말 추정량임.

표 5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 분	2007. 12	2008		
		10	11	12 /*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손익분기점 /*	101.16	115.76	114.20	109.71
판매가격	93.01	91.94	91.06	85.60
순이익	-8.15	-23.82	-23.14	-24.11

주: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표 6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 ~ 2000=100

구 분	2007. 12	2008		
		10	11	12 /*
육계(지수)				
사료비	134.4	180.8	178.9	141.8
시장가격	121.9	123.1	122.2	118.3
이윤(가격-비용)	117.5	102.8	102.1	110.0
칠면조(지수)				
사료비	140.4	231.3	199.6	197.3
시장가격	124.9	147.4	133.3	115.7
이윤(가격-비용)	117.8	109.1	103.1	78.6
계란(지수)				
사료비	155.4	200.1	153.7	149.1
시장가격	209.0	149.0	159.0	155.2
이윤(가격-비용)	237.0	122.3	161.8	158.5

주: /* 추정치임.

표 7 육류 통계

구 분	2007 1~12월	2008 1~12월	200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26,421	26,583	2,269	2,270	2,342	1,961	2,100
- 송아지고기	137	142	11	13	13	11	12
- 돼지고기	21,941	23,375	1,804	1,976	2,160	1,887	2,079
- 양고기	183	173	13	14	15	13	14
적색육 전체	48,682	50,272	4,097	4,273	4,530	3,872	4,205
- 육계	36,126	36,819	3,081	3,150	3,270	2,568	2,986
- 기타 계육	498	566	49	49	51	44	41
- 칠면조육	5,958	6,279	508	516	584	501	517
백색육 전체	42,582	43,664	3,637	3,714	3,905	3,113	3,544
전체 육류 생산량	91,263	93,936	7,734	7,987	8,435	6,984	7,749
도축두수(천두)							
소	34,264	34,381	2,911	2,889	2,991	2,519	2,683
- 거세우	17,563	17,223	1,471	1,444	1,424	1,156	1,295
- 미경산우	10,373	10,245	850	849	916	792	795
- 경산우	3,229	3,569	300	308	354	312	230
- 젖소	2,537	2,725	230	228	241	212	320
- 비거세우	562	620	60	60	56	47	43
- 송아지	758	955	79	88	96	81	92
양	2,692	2,539	201	221	225	194	215
돼지	109,172	116,548	9,268	9,969	10,747	9,325	10,235
- 비육돈	105,391	102,621	8,939	9,383	10,398	9,010	9,910
- 모돈	3,322	3,251	289	293	313	271	291
육계	8,898,486	8,902,949	743,519	753,812	777,825	617,200	719,700
칠면조	264,969	272,810	22,662	22,700	25,339	22,700	22,400
구 분	2007. 12월	200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육량 (파운드)							
소	784	784	790	789	784	783	
송아지	172	143	146	142	139	138	
양	69	67	66	68	68	68	
돼지	204	195	199	201	203	204	
재고 입고량 (백만파운드)							
쇠고기	475.3	423.9	434.0	448.1	465.1	474.3	
돼지고기	474.6	491.4	486.6	507.7	510.8	517.2	
- 내장	34.3	58.0	31.9	21.3	21.7	34.5	
- 햄	75.4	131.2	141.6	161.0	136.8	93.6	
닭고기	717.9	738.9	755.4	759.3	787.9	818.3	
칠면조고기	206.9	620.7	629.2	621.5	578.0	370.2	
냉동달걀	15.2	21.1	20.8	21.9	22.4	21.4	

표 8 생축 가격

구 분	2007. 12월	200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 ~ 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핸들	93.01	99.07	98.94	91.94	91.06	85.60
네브라스카	90.50	99.14	97.37	90.61	90.40	83.50
- 암소(수풀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 ~ 1,600파운드	51.42	65.75	62.69	55.70	46.63	43.50
유틸리티급 800 ~ 1,200파운드	48.75	63.00	59.00	53.60	44.75	40.00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 거세우						
1) 500 ~ 550 파운드	120.67	128.88	119.11	108.44	107.85	99.50
2) 600 ~ 650 파운드	109.70	114.07	110.05	97.82	97.25	90.50
3) 750 ~ 800 파운드	105.43	112.78	108.79	96.54	97.81	89.20
• 미경산우						
1) 450 ~ 500 파운드	114.17	107.84	107.25	95.91	92.66	85.80
2) 700 ~ 750 파운드	98.99	108.68	102.60	89.01	90.18	83.4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 ~ 52% 기준	39.40	62.56	52.76	47.06	38.90	40.00
- 모돈						
아이오와 #1-2, 300 ~ 400파운드	24.16	42.91	52.40	46.55	33.95	49.50

표 9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7. 12월	200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II	4.03	NA	NA	N/A	N/A	N/A
- 밀, HRW Ord., K.C. (\$/부셸)	9.47	NA	NA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314.78	0.00	0.00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36.00	180.00	176.00	172.00	163.00	N/A
- 건초, U.S. Avg.(\$/톤)	126.00	126.00	122.00	122.00	116.00	N/A

표 10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7. 12월	200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48.25	162.31	159.56	148.03	153.29	144.80
셀렉트급 1-3, 600~900 lb	134.27	155.69	152.59	140.92	148.36	135.70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34.00	176.35	170.08	151.26	136.13	123.1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29.06	180.13	171.75	153.30	131.50	129.90
- 가족 및 내장	9.90	N/A	N/A	N/A	N/A	N/A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58.67	89.57	76.19	67.81	57.28	59.00
- 등심, 14-19 lb Bl 1/4" trim	86.46	128.86	114.54	111.10	92.88	91.5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77.08	74.17	63.50	77.00	57.25	69.50
- 후지, 20-23 lb Bl trmd. TS1	50.61	89.35	76.70	59.27	52.72	52.75
- 잡육, 72% fresh	39.99	94.74	72.91	53.21	57.00	35.25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1.06	79.34	77.98	77.65	78.51	81.90
- 조지아 독(Georgia dock)	76.21	86.88	86.50	86.07	85.59	86.10
- 북동부						
• 뼈없는 가슴살	123.77	129.19	115.13	108.96	100.49	109.90
• 뼈있는 가슴살	74.85	73.98	69.70	70.71	67.84	70.20
• 다리(전체)	63.29	72.35	71.69	61.88	41.56	43.10
• 다리(1/4도체)	42.25	55.45	55.11	51.63	29.99	27.4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152.79	107.04	116.08	108.91	116.25	113.50
- 뉴욕	160.58	112.00	119.10	119.23	123.78	123.70

표 11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10월	260.55	3.21	126.3	120.3	118.2
2007년 11월	280.76	3.60	132.9	125.7	123.2
2007년 12월	314.78	4.01	134.4	121.9	117.5
2008년 1월	331.28	4.58	144.3	127.9	122.1
2008년 2월	345.88	4.87	156.9	132.6	124.0
2008년 3월	331.57	5.14	169.1	125.7	110.4
2008년 4월	329.94	5.58	176.4	120.8	101.2
2008년 5월	325.48	5.61	178.3	128.2	110.4
2008년 6월	370.92	6.56	185.2	126.7	106.1
2008년 7월	412.25	6.00	184.9	127.4	107.1
2008년 8월	355.35	5.04	208.3	126.0	97.0
2008년 9월	352.70	4.95	206.4	118.4	87.3
2008년 10월	260.66	3.66	180.8	123.1	102.8
2008년 11월	267.37	3.43	178.9	122.2	102.1

표 12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10월	260.55	3.21	140.9	144.8	146.9
2007년 11월	280.76	3.60	142.6	188.8	212.9
2007년 12월	314.78	4.01	155.4	209.0	237.0
2008년 1월	331.28	4.58	171.0	205.2	223.1
2008년 2월	345.88	4.87	187.6	202.6	210.5
2008년 3월	331.57	5.14	197.1	212.0	219.8
2008년 4월	329.94	5.58	201.4	165.3	146.5
2008년 5월	325.48	5.61	211.9	129.2	85.9
2008년 6월	370.92	6.56	211.9	153.2	122.5
2008년 7월	412.25	6.00	242.5	138.5	84.1
2008년 8월	355.35	5.04	235.5	146.4	99.9
2008년 9월	352.70	4.95	202.8	158.8	135.8
2008년 10월	260.66	3.66	200.1	149.0	122.3
2008년 11월	267.37	3.43	153.7	159.0	161.8

세계 육류 수급 및 교역 전망*

김 현 중

지난 10월 10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세계 축산물 수급 및 교역 전망에 따르면, 2009년 육류 수입량은 전년보다 1%(2,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인데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은 2% 늘어나고 돼지고기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1. 쇠고기

세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생산량은 5,900만 톤에서 정체일 듯

세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생산량이 1% 이하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295,000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생산량이 1% 이하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295,000톤)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중국, 인도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EU, 아르헨티나, 호주 및 러시아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2008년 생산량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수출 수요의 회복, 도축두수 증가, 구매력 상승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로 인해 2009년에는 19만 톤(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640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2008년 성장률보다 둔화된 것이며 생산비 상승(사료곡물, 유류, 물, 전기, 노동비)으로 향후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and Poultry : World Markets and Trade」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연구원이 작성하였다(kim1025@krei.re.kr, 02-3299-4376).

표 1 주요국의 소 및 송아지 고기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브라질	7,975	8,592	9,025	9,303	9,205	9,395
EU-27	8,245	8,090	8,150	8,203	8,220	8,170
중국	5,604	5,681	5,767	6,134	6,260	6,360
아르헨티나	3,130	3,200	3,100	3,300	3,200	3,160
인도	2,130	2,250	2,375	2,500	2,655	2,790
멕시코	2,099	2,125	2,175	2,202	2,253	2,293
호주	2,081	2,102	2,183	2,172	2,100	2,070
러시아	1,590	1,525	1,430	1,370	1,330	1,300
캐나다	1,496	1,523	1,391	1,279	1,270	1,260
파키스탄	979	1,005	1,057	1,089	1,121	1,150
기타	8,986	9,259	9,521	9,341	9,410	8,804
미국	11,261	11,318	11,980	12,096	12,226	12,203
전체합계	55,576	56,670	58,154	58,989	59,250	58,955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임. EU-27은 유럽연합 27개국임.
 자료: 미국 농무부(<http://www.fas.usda.gov>).

표 2 주요국의 쇠고기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브라질	8,582	8,550	8,649	8,704	8,520	8,490
EU-27	6,417	6,795	6,969	7,144	7,313	7,410
중국	5,557	5,607	5,677	6,061	6,210	6,324
아르헨티나	2,376	2,428	2,519	2,563	2,651	2,685
인도	2,519	2,451	2,553	2,771	2,805	2,684
멕시코	2,300	2,492	2,361	2,392	2,328	2,318
호주	1,638	1,633	1,694	1,735	1,845	1,975
러시아	1,169	1,188	1,159	1,182	1,187	1,194
캐나다	979	1,009	1,090	1,108	1,140	1,166
파키스탄	1,023	1,079	1,086	1,068	1,070	1,060
기타	10,024	10,324	10,768	10,760	10,710	10,185
미국	12,667	12,664	12,833	12,829	12,520	12,483
전체합계	55,251	56,220	57,358	58,317	58,299	57,974

인도의 쇠고기 생산량은 5%(13만 5천 톤) 늘어난 280만 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증가된 생산량은 국내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암소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반면 물소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물소는 고기, 우유뿐만 아니라 역용우(力用牛)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암소 및 돼지고기 소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소 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유기농 및 저지방 식품 수출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820만 톤으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감소가 예상되어 도축두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두수 감소로 전년보다 1% 감소한 21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사육여건이 개선될 경우 사육두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목장에서 출하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저하 및 질병에 따른 번식률 저하로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량은 2% 감소한 130만 톤으로 전망된다.

수출 : 2008년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 2009년은 증가할 듯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증가하지만, 호주 및 뉴질랜드의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2009년 수출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202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8년 수출량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출 위생 장벽의 극복으로 칠레, EU 및 기타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량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EU의 수입규제와 수출비용의 증가로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2008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25% 급락한 반면, 2009년에는 2008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주의 수출 쿼터 증가와 함께 사육업자의 파업에 따른 쇠고기 공급량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21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사육여건이 개선될 경우 사육두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목장에서 출하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저하 및 질병에 따른 번식률 저하로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량은 2% 감소한 130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3 주요국의 쇠고기 수출 동향 및 전망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브라질	1,610	1,845	2,084	2,189	1,925	2,015
EU-27	1,369	1,388	1,430	1,400	1,386	1,350
중국	492	617	681	765	810	815
아르헨티나	594	577	530	496	515	497
인도	616	754	552	534	400	480
멕시코	603	596	477	457	465	470
호주	354	417	460	385	400	420
러시아	115	180	232	196	290	290
캐나다	19	13	31	114	170	160
파키스탄	363	253	218	140	100	100
기타	303	349	310	397	413	334
미국	209	316	519	650	851	934
전체합계	6,647	7,305	7,524	7,723	7,725	7,865

단위: 천 톤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광우병(BSE) 교역 제한 규정 개정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교역량의 절반은 캐나다와 멕시코로 수출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의 수출 호조로

2009년 수출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8일 한국은 국제 무역 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생산품을 다시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추가협상을 하였다.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소규모 소매점에서만 판매되다가 11월 27일부터는 대형 유통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 내 이러한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냉장 쇠고기도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 발생으로 한국과의 쇠고기 교역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의 쇠고기 수출량 중 약 15%는 냉장육이었다.

2009년 호주와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출량은 자국 내 생산량 감소와 일본, 한국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소비 증가로 2008년보다 각각 3%, 4%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의 수입량 증가 전망

미국, 러시아, 일본, EU, 한국에서의 2009년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지만, 멕시코, 베네수엘라, 필리핀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강세 및 암소 도축 감소로 국내 쇠고기 공급여력이 감소하여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7%(8만 2천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쇠고기 수입량은 생산량 감소 및 육류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 증가한 100만 3천 톤으로 예상된다.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은 2%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가 많은 레스토랑과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연령규제가 남아있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6%(2만 톤) 증가한 34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러시아, 일본, EU, 한국에서의 2009년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지만, 멕시코, 베네수엘라, 필리핀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주요국의 쇠고기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브라질	719	978	939	1,030	1,010	1,030
EU-27	634	686	678	686	675	690
중국	296	335	383	403	440	435
아르헨티나	641	711	717	641	400	420
인도	224	250	298	308	320	340
멕시코	123	151	180	242	260	265
호주	54	32	54	186	260	250
러시아	173	221	292	293	225	240
캐나다	171	169	158	154	185	185
파키스탄	161	137	136	153	175	165
기타	1,304	1,482	1,558	1,640	1,672	1,636
미국	1,669	1,632	1,399	1,384	1,131	1,213
전체합계	6,169	6,784	6,792	7,120	6,753	6,869

2. 돼지고기

돼지고기 생산

2008년 주요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과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2007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중국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 주요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과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2007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중국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브라질,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의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표 5 주요국의 돼지고기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국	43,410	45,553	46,505	42,878	44,593	46,000
EU-27	21,753	21,676	21,791	22,858	22,300	22,100
미국	9,312	9,392	9,559	9,962	10,682	10,507
브라질	2,600	2,710	2,830	2,990	3,055	3,160
러시아	1,725	1,735	1,805	1,910	2,040	2,180
캐나다	1,936	1,920	1,898	1,894	1,845	1,770
일본	1,272	1,245	1,247	1,250	1,245	1,240
필리핀	1,145	1,175	1,215	1,245	1,190	1,200
멕시코	1,150	1,195	1,108	1,150	1,142	1,170
기타	7,770	7,950	8,198	8,593	8,618	8,535
합계	92,073	94,551	96,156	94,730	96,710	97,862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2년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원활하지 못했다. 2007년에는 청이병 피해로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폭설 피해, 대지진 등 자연 재해를 입었다.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청이병 피해로부터 다소 회복되면서 2007년보다 증가하였다. 정부 보조와 세금 감면 혜택으로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3.2% 증가하지만, 청이병 발생 전인 2006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미국의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캐나다로부터 생돈 수입은 감소했지만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돼지 폐사율 또한 저하되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사료비 부담에 따른 양돈 농가 사육 의향 저하로 모돈 도축이 늘어남에 따라 9월 1일자 모돈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사육두수 감소로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1.6% 감소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돼지 사육두수 감

소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도 사료비 부담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2008년보다 0.9% 감소할 전망이다.

캐나다 돼지 사육두수는 농가 수익성 악화로 2005년 중반부터 모돈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10월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대비 10.9% 감소하였으며, 그 중 모돈수는 8.3% 감소하였다. 사육두수 감소로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6% 감소하였으며, 2008년 모돈수 감소로 2009년 사육두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4.1% 감소할 전망이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하고, 러시아는 6.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곡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사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2009년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3.4% 증가할 전망이며 러시아의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 또한 2008년보다 6.9% 증가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소비

2008년 주요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중국과 러시아의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의 2008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대비 5% 증가했으며, 러시아는 6.3%, 브라질은 5.3%, 멕시코는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27개국)의 2008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각각 4.0%, 2.7%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주요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중국과 러시아의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주요국의 돼지고기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p)	2009(f)
중국	43,042	45,150	46,051	42,726	44,875	46,190
EU-27	20,528	20,632	20,632	21,508	20,924	20,680
미국	8,817	8,673	8,636	8,966	8,604	8,566
러시아	2,338	2,486	2,639	2,803	2,979	3,139
일본	2,529	2,509	2,452	2,473	2,498	2,488
브라질	1,979	1,949	2,191	2,260	2,380	2,455
멕시코	1,556	1,556	1,488	1,521	1,597	1,610
필리핀	1,169	1,198	1,239	1,270	1,244	1,243
캐나다	1,068	966	973	1,023	982	980
기타	8,867	9,081	9,607	10,017	10,303	10,259
합계	91,893	94,200	95,908	94,567	96,386	97,610

2009년 주요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소비는 감소하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의 소비 증가

로 2009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8년보다 1.3%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미국과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각각 0.4%, 1.2%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러시아, 브라질의 2009년 소비량은 각각 2.9%, 5.4%, 3.2% 증가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교역 (수출)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전세계 수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25%, 캐나다 18%, 브라질은 11%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으로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순이다. 미국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수출량의 40%이며 유럽연합은 25%, 캐나다는 18%, 브라질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유럽연합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나 2005년부터는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졌다.

돼지고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8년 미국의 수출량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일본, 멕시코, 중국, 러시아, 홍콩 등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요 강세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다. 특히 올림픽 개최로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했으나 돼지 질병 및 자연재해로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이 생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멕시코, 일본으로의 수출은 안정적이지만,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수입 감소로 2009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4.1% 감소할 전망이다.

표 7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지육기준)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p)	2009(f)
수입	일본	1,269	1,314	1,154	1,210	1,248	1,242
	러시아	614	752	835	894	940	960
	멕시코	458	420	446	451	540	530
	홍콩	285	263	277	302	367	390
	미국	499	464	449	439	377	372
	중국	169	99	90	198	480	360
	기타	1,214	1,436	1,662	1,578	1,849	1,889
합 계	4,508	4,748	4,913	5,072	5,801	5,743	
수출	미국	989	1,209	1,359	1,425	2,412	2,313
	EU-27	1,302	1,143	1,284	1,285	1,525	1,475
	캐나다	972	1,084	1,081	1,033	1,075	1,080
	브라질	621	761	639	730	675	705
	중국	537	502	544	350	198	170
	칠레	103	128	130	148	115	120
	기타	192	179	187	190	184	191
합 계	4,716	5,006	5,224	5,161	6,184	6,054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역내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해외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200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수출량은 전년대비 18.7%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유럽연합 지역 내 돼지고기 생산 감소로 2008년보다 3.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2008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7.5% 감소했지만 2009년에는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 미국,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감소가 예상되며 브라질의 수출량은 해외 수출 시장 확대와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2008년보다 4.4% 증가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교역(수입)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일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세계 돼지고기 수입량에서 일본이 수입하는 비중은 22%이며, 러시아는 16%, 멕시코는 10%를 차지한다. 일본의 2008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2008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2008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올림픽 개최로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돼지 질병과 자연재해로 돼지고기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다. 증가하는 돼지고기 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한 결과 2008년 중국의 수입량은 2007년보다 142%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2009년 수입량은 2008년보다 25%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자체 돼지고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2008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도 2.1%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일본으로 2008년 기준으로 전세계 수입량의 22%를 차지한다. 2008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3. 닭고기

닭고기 생산 및 소비

중국, 브라질 등의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4% 증가한 7,400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사료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1973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은 각각 8%,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6년 이후 돼지고기 공급의 급감으로 닭고기 생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브라질은 해외 수요의 증가로 닭고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브라질 등의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4% 증가한 7,400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8 주요국의 닭고기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p)	2009(f)
중 국	9,998	10,200	10,350	11,354	12,650	13,700
브라질	8,408	9,350	9,355	10,305	10,895	11,417
EU-27	7,852	8,169	7,740	8,250	8,400	8,495
멕시코	2,389	2,498	2,592	2,683	2,775	2,860
인 도	1,650	1,900	2,000	2,240	2,490	2,770
러시아	650	900	1,180	1,350	1,550	1,780
아르헨티나	910	1,030	1,200	1,280	1,425	1,550
이 란	1,152	1,237	1,327	1,423	1,425	1,425
일 본	1,124	1,166	1,227	1,250	1,260	1,260
태 국	900	950	1,100	1,050	1,140	1,200
기 타	9,290	9,771	10,197	10,780	11,046	11,293
미 국	15,286	15,870	15,930	16,211	16,677	16,487
합 계	59,609	63,041	64,198	68,176	71,733	74,237

유럽연합의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영국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한 850만 톤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27)의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영국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한 850만 톤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가금산물 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생산량 증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에 절대적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2008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15% 증가한 155만 톤으로 추정되며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15% 증가한 178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9 주요국의 닭고기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p)	2009(f)
중 국	9,931	10,088	10,371	11,478	12,825	13,867
EU-27	7,616	8,087	7,661	8,265	8,450	8,565
브라질	5,992	6,612	6,853	7,384	7,565	7,757
멕시코	2,711	2,868	3,016	3,067	3,188	3,295
러시아	1,675	2,139	2,373	2,581	2,780	2,968
인 도	1,648	1,899	2,000	2,239	2,490	2,770
일 본	1,713	1,880	1,939	1,945	1,932	1,935
이 란	1,161	1,223	1,326	1,464	1,454	1,454
아르헨티나	845	949	1,123	1,190	1,315	1,420
남아공화국	964	1,069	1,202	1,241	1,267	1,300
기 타	11,578	12,103	12,511	13,488	14,432	14,818
미 국	13,081	13,430	13,671	13,567	13,692	13,682
합 계	58,915	62,347	64,046	67,909	71,390	73,831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닭고기 소비량은 2008년보다 3.4% 증가한 7,383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국내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닭고기 소비량이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등의 닭고기 소비 증가 속도가 여타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닭고기 소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교역(수출, 수입)

브라질과 미국은 전세계 닭고기 수출량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의 2009년 닭고기 수출량은 상반된 결과가 예상된다. 브라질은 홍콩, 일본 아랍에미리트, EU-27,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의 수출이 가속화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2009년 닭고기 수출량은 러시아의 수요 감소로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쿠바,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닭고기 수출량은 200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세계 닭고기 수입량은 EU-27,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의 수요 증가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의 닭고기 수입량은 러시아의 수입 감소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면서 유럽연합국가(EU-27)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비 증가는 EU의 닭고기 수입 증가,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2009년에도 EU에서는 닭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라질과 태국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의 금융자산 유동성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에도 브라질로부터의 닭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가공 산업의 수요 증가로 멕시코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의 닭고기 수입은 관세 특혜를 받고 있는 브라질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반면에 여타 수출국이 베네수엘라에 닭고기를 수출할 경우 20% 관세 부과와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입국인 러시아의 2009년 닭고기 수입량은 2008년보다 감소한 119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사료비 하락으로 자국내 닭고기 생산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산 닭고기 수입 감소분을 브라질과 미국산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은 2008년과 같은 수준인 68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 검역조사국(Chinese Inspection Service)에 등록되지 않은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와의 문제로 중국에서는 브라질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었다. 2009년에는 이러한 공백을 미국과 아르헨티나산 닭고기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미국은 전세계 닭고기 수출량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2009년 세계 닭고기 수입량은 EU-27,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의 수요 증가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주요국의 닭고기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p)	2009(f)
수입	러시아	1,016	1,225	1,189	1,222	1,235	1,190
	EU-27	489	609	605	640	670	680
	일본	582	748	716	696	680	680
	사우디아라비아	429	484	423	470	490	500
	중국	174	219	343	482	450	450
	멕시코	326	374	430	393	425	450
	베네수엘라	69	104	124	163	300	320
	아랍에미리트	158	167	182	238	300	300
	홍콩	244	222	243	215	240	250
	베트남	36	6	29	160	275	250
	기타	1,917	1,966	1,971	2,267	2,648	2,756
	미국	12	15	21	28	34	36
	합계	5,452	6,139	6,276	6,974	7,747	7,862
수출	브라질	2,416	2,739	2,502	2,922	3,330	3,660
	EU-27	725	691	684	625	620	610
	태국	200	240	261	296	350	360
	중국	241	331	322	358	275	283
	캐나다	74	101	110	139	145	150
	아르헨티나	66	84	80	95	115	135
	쿠웨이트	24	97	38	60	70	70
	칠레	39	52	56	34	50	55
	아랍에미리트	15	20	10	30	30	30
	호주	15	18	16	25	25	25
	기타	63	71	54	69	69	75
	미국	2,170	2,360	2,361	2,678	3,027	2,846
	합계	6,048	6,804	6,494	7,331	8,106	8,299

참고자료

<http://www.fas.usda.gov/psdonline/>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October 10, 2008 발취정리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08.12)

세계 농업 브리핑 (2008.12)*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일본, 식품 탈중국산 연상 심화

- 2008.12.17일, JT(일본담배공사)는 자회사가 판매한 중국산 냉동만두 중독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냉동식품 제조위탁처를 중독사건 전에 비해 40% 줄이기로 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토요시 등을 포함한 JT그룹 전체의 중국 위탁처 수는 사건이 발생한 1월 이전에는 42개소였으나 사건 후에 위탁처의 안전관리체제를 재조사하고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공장과의 계약을 끊어 25개로 줄어들었음. 중국산 냉동식품은 매상이 전년도에 비해 40%로 급락하였으며 냉동식품 전체의 매출을 담당하는 중국산의 비율도 30% 이상에서 20% 이하로 감소함.

○ **일본, 이태에 국제인정을 신청**

-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2008.12.15일 국제수역사무국(OIE)¹⁾의 BSE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고 발표함. 심의를 거쳐 2009.5월 총회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단계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임. 이는 국제기준의 인정을 취득하는 것으로 국내 위험관리체제의 안전성을 어필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일본은 2002.1월 BSE에 감염된 전례가 있어 ‘과거 11년 이내 자국에서 태어난 소의 BSE 발생이 없었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1단계인 광우병 청정국의 인정은 받을 수 없음.

○ **일본,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농 계유지역 생산 강화**

- 세계적인 식량가격 급등과 중국산 냉동만두 사건으로 외국산 농산물 의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관동지방 등 8개 지역 생협으로 구성된 코프네트 사업연합은 내년부터 식료자급률 향상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12.4일에는 코프네트와 가맹하고 있는 8개 생협, JA전농의 8개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락회를 결성할 예정임.
- 지산지소(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일)를 전제로 하여 청과물은 영농지역의 조달비율을 현행 37%에서 2010년에는 5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음. 그리고 JA전농과의 제휴와 산지교류에 힘을 쏟는 한편, 생협 조합원이 자기 지역 농산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품표시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세계요리 서밋에서 자국 식재료와 식문화 홍보 예정**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09.2월에 동경에서 열리는 ‘2009 세계요리 서밋 (2009 世界料理サミット-Tokyo Taste)’에서 일본의 식재료와 식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요리 서밋’에는 각국의 저명한 요리인과 매스컴 관계자

1) OIE는 BSE의 위험관리체제를 광우병 청정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미결정국의 3가지로 분류하여 인정하고 있음. 인정에 있어서는 사료규제의 기간, BSE 감염여부의 검사체제 등이 기준이 됨. OIE는 현재의 기준으로 2006년에 인정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까지 광우병 청정국에는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목표로 하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가맹국 등 21개국과 지역이 인정을 받고 있음.

들이 모일 예정이다. ‘세계요리 서미트’는 각국의 저명한 요리사가 모여 최신 조리기술을 피력하는 것으로 ‘요리인의 학회’라고도 불리워짐. 농림수산성은 회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수출전략으로 정한 중점 품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는 방침임.

○ **중국, 일자리 잃고 귀향한 농민공 900만 명**

- 중국 국가통계국은 쓰촨(四川)성과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 등지에서 긴급조사한 결과, 귀향 농민공이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힘. 이에 앞서 농업부는 고향으로 귀향한 농민공 수를 780만 명으로 집계했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11월 초 700만 명이라고 발표함. 일자리 및 임금 감소로 귀향한 농민공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도 중국 내륙 지역의 실업률이 급등할 것으로 보임.

○ **중국, 농민공에 대한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 11.19일 상하이시는 우수 학생 창업지원금으로 5,000만 위엔(한화 105억 원, 1위엔=210원)의 기금을 조성함. 창업기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업자 창업지원이나 귀향 농민에게도 지원되고 있음.
- 공이시의 경우 150만 위엔의 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함. 공이시는 매년 30%에 달하는 유효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갔으나 최근 감원과 기업 부도로 인해 귀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신청자 26명 중 16명의 귀향농민이 1인당 3만~5만 위엔씩의 소액대출을 받았다고 밝힘.
- 충칭시 농촌상업은행은 농촌산업화 발전기금으로 앞으로 3년간 총 200억 위엔에 달하는 대출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12.11일 밝힘. 이 중 132억 위엔 가량이 농촌으로 귀향하는 농민공의 창업자금 대출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농민 농기구 구매 보조금 100억 위안 지급**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008.12.1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농민공(農民工)의 취업 활로를 확대하고 내년도 농기구 구입 보조금을 2008년보다 60억 위안 늘어난 100억 위안 지급하겠다고 밝힘. 이 외에도 농민공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집약형 기업 지원을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농민공의 귀향 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지, 정보, 사업등록, 납세 등의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힘.

○ **중국, 13개 성시(省市) 농촌오구폐 폐지**

-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산둥(山東),

충칭(重慶)시, 쓰촨(四川) 등 13개 성시(省市)가 그간 농촌 호구와 非농촌 호구로 분리되어 있었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주민호구로 통합하는 도농 통합호구제도를 시행키로 함.

- 중국의 기존 호구제도의 경우 타 지역에서 취직이나 취학, 결혼하더라도 호구를 바꿀 수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음. 중국 내 전문가들은 기존의 호구제도가 거주자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사회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식품안전 캠페인 실시

- 중국은 대형 식품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12.10일부터 4개월간 식품안전 캠페인을 실시함. 이 캠페인은 내년 1.10일까지 한 달간 업계에 자체 정비시간을 준 후 안전문제가 큰 식품부터 샘플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합동 검사팀은 불법 첨가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식품업체에 대한 공급 루트를 차단하는 한편 육류, 낙농제품, 주류 등 안전문제가 큰 식품에 수단홍, 말라카이트 그린 등을 사용하는지를 적발할 방침임. 당국은 식품에 불법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물질과 남용하기 쉬운 식품첨가제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불법첨가제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전화도 받아 적발업체를 처벌할 예정임.

○ 중국, 2007년 녹색식품 판매액이 2,000억 위안을 초과

-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비능력향상과 멜라민사건 등 중국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녹색식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음. 2007년 중국의 녹색식품 총생산량은 8,300만 톤, 판매액은 2,000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수출액은 약 23억 달러로 농산품 총수출액의 7%에 해당함. 올해 10월 말 현재 중국 전역의 녹색식품기업은 총 6,160개사, 제품수량은 1만 7,600여 개에 달함. 신선녹색야채를 직공급하는 회원제 농장, 조리가 편리하도록 모든 손질이 이루어진 육류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축산농장을 경영하는 외자기업도 늘고 있음.

○ 중국,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 산루(三鹿)사 파산선언

- 6명의 사망자와 54,000명의 환자를 낸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인 산루사가 3개월간 영업정지로 인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함. 최근 허베이성 스자좡(河北省石家庄) 법원은 산루사의 파산을 선언했으며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산루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6개월에 걸쳐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음. 산루의 대리점들도 산루가 최근 구두로 파산을 통보했다

고 전하며 전국의 대리점 사장들이 보증금을 환불받기 위해 스자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함.

○ **중국, 최초의 국가급 쌀 교역센터 설립**

- 중국 최초의 국가급 쌀 교역센터가 11.20일 우한(武漢)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었음. 지난 2006년부터 설립을 준비해 온 쌀 교역센터는 우한시 신주구(新洲區)에 위치해 장강 황금수로와 인접해 있음. 또한 5,000톤급 부두가 있고 북경-광주 철도 및 북경-주해 고속도로, 318국도 등과 연결되어 편리한 교통조건을 갖춘. 전체 프로젝트의 부지면적은 2,000무(1무≒200평), 건축면적은 25만㎡, 투자총액은 37억 7,900만 위안에 달함.

○ **홍콩, 정부가 인정한 양계장에서 AI 발병**

- 정부가 인정한 홍콩 Yuen Long(元朗)의 한 양계장에서 AI 발병 사실이 확인됨. 최소 200마리의 닭이 치사에 이르렀으며, 죽은 닭 3마리와 살아있는 닭 120마리의 분변을 채취해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H5 양성반응을 보임. 죽은 닭 가운데 절반은 AI 백신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치사했음.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졌거나 바이러스가 변종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우려를 낳고 있음.

○ **스리랑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책 강구**

- 스리랑카 보건당국은 12.17일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접국가의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리랑카에 AI 발생 징후는 없으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의약 및 장비 마련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2008년 중 9월말 현재 전세계에 AI 감염자 390명 중 246명이 사망하고 가금류 150백만 마리가 처분됨. 보건부 전염병 예방책임자 Dr.Palhawadana는 스리랑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350만 루피(32,000불 상당)를 지원받았으며 철새, 무역 및 방문객 증가가 AI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2. 유럽

○ **EU, 에너지 및 기후변화패키지 최종타결 (유럽의회 통과)**

- 2008.12.17일에 열린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금년 초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패키지’를 통과시킴에 따라 EU의 동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음.

- 통과 법안 주요내용 중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지침 : 1) 2020년 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달성하도록 회원국별 달성 목표치를 설정 2)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0% 달성토록 함 3)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Sustainability criteria)을 설정하여, 예컨대 바이오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화석연료 대비 최소 35% 이상 달성토록 함(2017년 이후 50%) 4) 회원국간 공동 목표달성 인정 5) 재생가능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 EU, 11월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 2008.11.28일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극빈자 식량배급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1.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 의장국 프랑스는 내년에 개시될 중기재정계획 중간평가 및 2013년 이후의 예산편성 방향 논의에 앞서 2013년 이후 농업정책방향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결론(Council Conclusion)을 도출하고자 의장국 문서를 회람하였으나, 영국, 스웨덴, 라트비아의 반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의장국 결론(Presidency Conclusion)으로만 문서를 채택함.
- 2. 극빈자 식량지원 프로그램 : 지난 9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극빈자 식량분배 프로그램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덴마크, 영국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현 집행위원 재임기간 중 채택가능성도 불투명하게 됨. 반대 국가들은 식량분배 프로그램을 회원국 사회정책 재원에서 조달하지 않고 공동농업정책 예산으로부터 조달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함.

○ EU 집행위원회, 아일랜드 돼지고기 다이옥신 관련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08.12.8일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사건 발생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아일랜드 방역당국은 식품유통체인에 대한 정기 점검과정에서 돼지고기에 높은 수준의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를 발견했으며 다이옥신 오염의 주 원인은 오염된 동물사료로 확인하였음. 높은 다이옥신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식품유통체인에서 오염된 식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
- 오염된 사료는 10개 돼지 사육농장 (전체 아일랜드 돼지공급의 10% 점유)에 공급되었고 동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는 육가공공장에서 도축되었는데

동 공장은 아일랜드 돼지고기 총공급의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이옥신 오염사건의 영향을 받은 돼지고기를 선별하여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방역당국은 어제 아일랜드에서 도축된 돼지를 이용한 고기 및 육제품을 시장에서 모두 회수(Recall)하기로 결정함.

○ **EU, 농식품유통 자유화 및 경쟁속진 로드맵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08.12.10일 2007년 하반기~2008년 전반기까지 이어진 농식품 가격 상승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여 농식품 유통망을 개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함.
- 2007.8월~2008.7월까지 농식품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서민가정에 큰 영향을 주었음(EU 전체 물가의 1%p 상승 효과). 이러한 식품가격 상승의 원인은 원료 곡물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EU 공급 유통망의 진입규제나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식품공급 유통망의 자유화 및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항상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을 통해 농민이 시장에 보다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DDA 협상을 통해 농산물 국제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집행위원회 정책구상은 식품공급 유통망의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함.

○ **EU, 염소양균처리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유지 결정**

- 2008.12.18일 개최된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염소 항균처리된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금지를 해제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함.
- EU 집행위원회는 미국-EU 경제협의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미국-EU 닭고기 분쟁을 해결하고자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검토의견을 거쳐 2008.5월 염소 항균처리된 미국산 닭고기를 식수로 행균처리하고 동 내용을 라벨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함. 12월 농업각료이사회에 참여한 26개 회원국 각료들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하였음(영국은 기권).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끌어온 미국-EU간 닭고기 분쟁은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U, 호주와 새로운 포도주 협정 체결**

- 2008.12.1일 피셔 보엘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Stephen Smith 호주 외무장관은 새로운 포도주 협정문에 서명함. EU와 호주는 주요 포도주 생산국이자 교역국으로서 상호 중요한 포도주 시장임. 1994년 EU와 호주는 첫 번째 포도주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EU의 주요 지리적표시와 전통표현 사용의 중

단시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1994년 이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7.6월 재협상을 개시함. 이번 합의 서명된 협정문은 각각 국내법 개정작업을 거쳐 2009년 중반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EU에 등록된 2,500개 이상의 지리적표시를 포도주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호주는 호주 생산자가 협정문에 등재된 EU의 전통표현(Traditional Expression)을 협정발표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단, 동 표현의 번역은 가능)
- EU는 호주에 등재된 112개 지리적표시를 보호함. EU는 16개 호주 포도주 제조기술을 추가로 인정하며 향후 개발될 와인제조 기술 인정절차(중재 메카니즘 도입)를 명확히 함. EU시장에서 판매되는 호주산 와인의 라벨링 요건을 간소화하고 알코올 함유 상한을 현재 15%에서 20%로 인상하며, 라벨 표현 알코올 함유량과 실제 알코올 함유량의 차이 허용치를 현행 0.5%에서 0.8%로 완화함.

○ 러시아, 곡물창고 부족

- 러시아 곡물수출은 1년 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곡물창고가 부족함에 따라 연방 중심 지역으로부터 곡물을 옮길 계획임. 정부의 곡물창고 부족현상은 15년 만의 최대 풍작으로 인해 옥수수, 밀, 보리의 저장창고가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임. 농업부에 따르면 금년 러시아의 곡물생산량은 약 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러시아 곡물 연맹은 러연방 중앙지역으로부터 곡물을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며 잉여 곡물의 재배치를 위하여 곡물 선적을 위한 철도 관세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전함.

○ 러시아, 2009년 육류 수입 쿼터 발표

-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2009년 육류 수입 쿼터를 발표했다. 돈육은 2만 9,700톤이 증가된 53만 1,900톤, 가금육은 30만 톤이 감소한 95만 2,000톤 정도가 수입될 전망이다.
- 돈육의 경우 미국산이 4만 300톤에서 1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반입될 예정이고, EU와 파라과이산 돈육은 이전의 쿼터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타국의 수입은 19만 7,100톤에서 17만 7,500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가금육의 경우는 알렉세이 고르체예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이 이전에 언급한 대로 수입량이 크게 감소함. 미국산 가금육은 93만 1,000톤에서 75만 톤으로, EU로부터 반입되는 가금육은 24만 4,400톤에서 18만 5,000톤으로, 파라과이산 가금육

은 5,000톤에서 3,800톤으로, 기타국 수입은 7만 1,100톤에서 1만 2,400톤으로 감소될 것임.

○ **러시아, 2천억 루블을 저리 이율로 농민에게 융자할 예정**

- 인터팍스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정부가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저리의 자금 융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함. 빅토르 주브코프 제1 부총리는 ‘정부는 2천억 루블을 12.1일 현재 13%로 인상된 중앙은행의 대출이자율의 2/3에 해당하는 저리의 이율로 농민들에게 융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도함.

○ **독일,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초콜릿 시장**

- 독일 경제주간지 Wirtschaftswoche에 따르면, 독일 내 초콜릿 상품 시장규모가 2000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0년 초콜릿 시장의 생산 규모는 72만 유로였으며 2007년에는 97만 3천 유로로 집계되었음. 일반인의 과자류 섭취는 총 32.16kg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0.6kg이 증가한 수치임. 이 중 초콜릿 상품 관련 소비가 총 9.41kg으로 2006년 대비 2.7kg 증가했으며 전체 과자류 시장에서 최고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이탈리아, 파스타산업 현황**

- 스파게티, 즉 파스타는 피자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식품임. 2007년 기준 이탈리아의 파스타는 1,700만 톤이 수출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4억 유로임. 파스타는 단순히 이탈리아 식문화일 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이며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탈리아 파스타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독일로 전체 수출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13.7%, 영국 12.6%, 미국 9.5%, 일본이 4.3%를 차지하고 있음. 위의 5대 국가가 전체 이탈리아 파스타 수출의 60.5%를 차지하고 있음. 2007년 이탈리아의 파스타 생산량은 3,200만 톤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지 못했음. 2008년 역시 경제침체로 인해 파스타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며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업체에 원가 부담이 큰 한 해였음. 2008년 상반기 기준 이탈리아의 파스타 수출은 약 10억 유로로 전년대비 48% 이상 증가했으며 수출의 50%는 EU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2008년도 수출의 특징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수출이 늘어남. 특히 인도로의 수출이 금액기준 57.4%, 물량기준 37.5% 증가했음.

3. 아메리카

○ 미국, 닐슨이 발표한 2009년 식품산업 트렌드

- 미국 리서치회사인 닐슨이 발표한 ‘2009년 트렌드 20’ 중에서 미국 식품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비자들은 미국산 PB브랜드를 선호하게 된다. 2. 유기농제품의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3. 식품자재가격과 유통비가 하락해도 식료품값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4. 할인쿠폰 사용인구가 늘어난다. 5. 지구를 구하기 위한 환경보호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그린’제품을 선호한다. 6.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면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이 제공하게 된다 7. 2009년에는 브랜드 신상품들의 숫자가 감소하게 된다. 8. 소비자들은 정육매장에서 벌크판매보다 포장판매되어 있는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9. 비타민판매는 2009년에도 꾸준히 지속된다.

○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에 황룡병 우려

- 브라질의 오렌지 농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황룡병이 캘리포니아에도 곧 퍼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농업 관계자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음. 감귤류 질병인 황룡병(Greening)은 중국에서 유래해 이미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감귤류 산업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킴. 세계 오렌지 수출시장의 80%를 점유한 브라질에도 4년 전에 등장하여 브라질 농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음. 브라질 마케팅조사회사 마켓스트렛에 따르면,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앞으로 브라질 오렌지 농장의 25%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 황룡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2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산업이 위협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전함. 황룡병은 브라질에서 등장한 이듬해인 2005년 플로리다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 남동부와 텍사스 전역으로 퍼짐. 미국 플로리다 재배산업은 올해 황룡병 연구 예산을 2,000만 달러로 책정하였으며, 이달 올랜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전세계 26개국의 과학자, 정부 관리 및 재배농가들이 모였음.

○ 미국, 불황으로 외식산업도 명암교차

-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2008년 3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3% 줄어들었고 연 매출 6,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 외식산업은 불황을 맞고 있음.

- 외식업계에 따르면 패밀리 레스토랑과 피자전문점이 매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반면,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등은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버티고 있음. 한때 웰빙 붐으로 외면받던 패스트푸드는 매출이 오히려 늘었고, 커피전문점도 손님이 끊이질 않아 그동안 미뤄왔던 가격 인상에 나섰다. 맥도날드의 10월 미국 내 매출은 5.3%, 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의 매출은 무려 11.5% 증가했음. 커피전문점들은 식사 값에 맞먹는 가격에도 젊은 소비자의 커피에 대한 기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불황에도 선전 중임.

○ 캐나다, 2010년까지 30억 리터의 바이오연료 생산 계획

- 캐나다 바이오제품 생산업체는 식물·동물·미생물 같은 천연원료를 이용해 생체추매, 추출, 가스화 과정을 거쳐 바이오연료·화학제품·플라스틱 같은 산업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30억 리터(가솔린 소비의 5%)의 바이오연료와 14억 리터(에탄올 소비의 35%)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도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09년에는 산업 내 생산량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The ecoAGRICULTURE Biofuels Capital Initiative²⁾와 The ecoENERGY for Biofuels³⁾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를 도모하고 있음.

2) 캐나다 농림부(Agriculture and Agric-Food Canada)는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를 도모하고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1.3월까지 바이오연료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캐나다 기업의 재정 상태와 프로젝트를 심사한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해 설립자금을 지원함.

3)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 Canada)는 바이오 연료 생산자의 20%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2008.4.1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며, 2017년까지 9년간 15억 캐나다달러 정부자금을 바이오 연료 생산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함. 인센티브를 신청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인센티브 수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프로그램 펀드가 유효하면 펀드를 지급함.

세계농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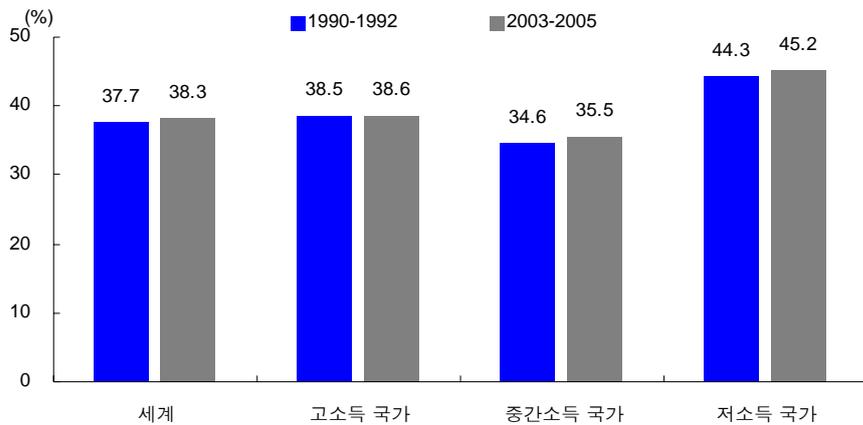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세계 농업 통계(세계 농업 면적)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이번 달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별 국가들의 농업 투입재 사용 현황을 담았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이용되는 농지, 기간 시설, 화학비료·기계 등 투입재, 노동력 등이 변화하게 된다.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발간하는 세계 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는 발전 단계에 따른 변화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림 1 전체 국토 대비 농지 비중



주: 1) 농지는 목초지, 경지, 상록작물(permanent crops) 재배지 등을 모두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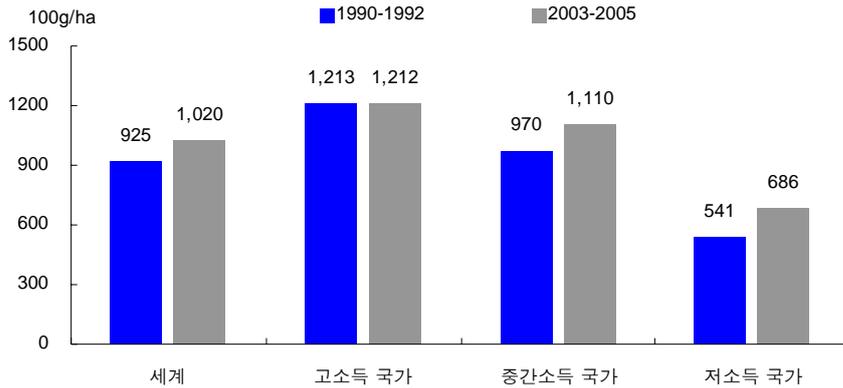
2) 소득수준별 국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였음. 일인당 GNI가 875달러 이하인 국가를 저소득 국가, 875~10,725달러인 국가를 중간소득 국가, 10,725달러 이상인 국가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

자료: 국제부흥개발은행(<http://www.worldbank.org>)

전세계 국토 대비 농지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 단계에서 중간 소득 단계로 이행하면서 농지 비중 증가율이 높아졌다가 소득이 더욱 높아지면서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1990~1992년 대비 2003~2005년 농지면적 비중 증가율: 저소득 국가 2.0%, 중간소득 국가 2.6%, 고소득 국가 0.3%). 이는 저소득 단계에서는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소득 단계로 진입하면서 기술개발과 기계화로 단수가 높아져 면적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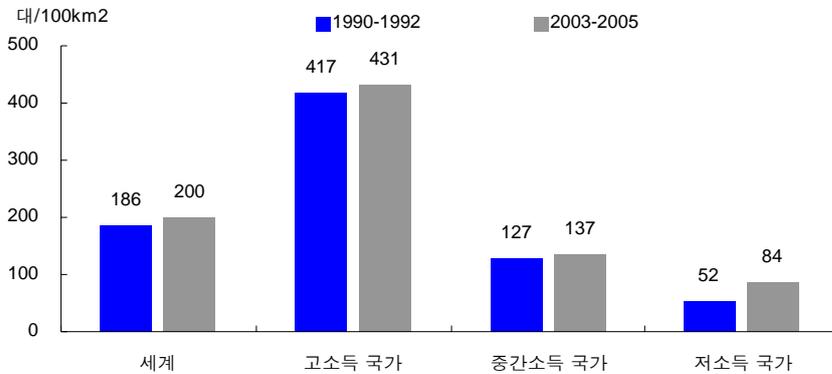
비료 사용량은 1990~1992년 평균 92.5kg/ha에서 2003~2005년 평균 102.0kg/ha로 약 4% 증가하였다. 농지 면적 비중과 달리 단위면적당 비료 사용량 증가율은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소득 국가는 비료 사용량이 감소함). 이는 기술 발달 및 고소득 국가의 친환경 농업 확산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비료 사용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FarmToConsumer/marketingbill.htm>)

그림 3 기계화 수준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FarmToConsumer/marketingbill.htm>)

경지면적당 기계화 수준도 비료 사용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의 기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해당 기간 동안의 기계화 진전 수준은 저소득 국가(61.5%)가 고소득 국가(3.4%)보다 월등히 높지만, 면적당 투입할 수 있는 트랙터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비해 약 5배 높은 편이다.

작성자: 유찬희

표 1 국가별 농업 면적 (2005년도)

국가	국토면적 Land area		농업면적 Agricultural area		
	1000ha	순위	1000ha	순위	국토면적 대비 비율 %
가나	22,754	82	14,735	59	64.76
가봉	25,767	77	5,160	88	20.03
가이아나	19,685	85	1,740	128	8.84
감비아	1,000	164	814	145	81.40
과달루프	169	177	45	174	26.63
과테말라	10,843	103	4,652	92	42.90
괌	54	190	20	185	37.04
그레나다	34	202	13	193	38.24
그루지야	6,949	120	3,006	106	43.26
그리스	12,890	96	8,359	76	64.85
그린란드	41,045	57	235	157	0.57
기니	24,572	78	12,570	64	51.16
기니비사우	2,812	140	1,630	132	57.97
나미비아	82,329	33	38,820	29	47.15
나이지리아	91,077	30	74,000	14	81.25
남아프리카공화국	121,447	24	99,640	13	82.04
네덜란드	3,388	135	1,921	125	56.70
네덜란드령앤티를리스제도	80	182	8	201	10.00
네팔	14,300	93	4,222	97	29.52
노르웨이	30,428	70	1,036	142	3.40
노포크섬	4	220	1	217	25.00
뉴질랜드	26,771	75	17,269	51	64.51
뉴칼레도니아	1,828	153	249	156	13.62
니우에	26	205	8	201	30.77
니제르	126,670	20	38,500	30	30.39
니카라과	12,140	97	5,326	85	43.87
덴마크	4,243	132	2,589	113	61.02
도미니카	75	183	23	183	30.67
도미니카공화국	4,838	129	3,420	102	70.69
독일	34,877	62	17,030	52	48.83
동티모르	1,487	157	340	154	22.86
라오스	23,080	80	1,959	122	8.49
라이베리아	9,632	108	2,602	112	27.01
라트비아	6,229	124	1,734	129	27.84
러시아	1,638,139	1	215,680	5	13.17
레바논	1,023	162	388	152	37.93
레소토	3,035	137	2,334	116	76.90

표 1 국가별 농업 면적 (2005년도)

재배면적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초지면적 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		Country
1000ha	순위	1000ha	순위	
6,385	41	8,350	57	Ghana
495	134	4,665	70	Gabon
510	133	1,230	104	Guyana
355	138	459	131	Gambia
24	169	21	164	Guadeloupe
2,050	89	2,602	81	Guatemala
12	181	8	172	Guam
12	181	1	198	Grenada
1,066	113	1,940	90	Georgia
3,759	61	4,600	71	Greece
-	219	235	142	Greenland
1,870	94	10,700	51	Guinea
550	130	1,080	108	Guinea-Bissau
820	120	38,000	20	Namibia
35,000	9	39,000	18	Nigeria
15,712	21	83,928	11	South Africa
941	115	980	113	Netherlands
8	188	-	204	Netherlands Antilles
2,487	80	1,735	96	Nepal
867	118	169	147	Norway
-	219	1	198	Norfolk Island
3,406	68	13,863	43	New Zealand
10	184	239	141	New Caledonia
7	192	1	198	Niue
14,500	22	24,000	29	Niger
2,161	85	3,165	78	Nicaragua
2,244	83	345	136	Denmark
21	171	2	190	Dominica
1,320	105	2,100	86	Dominican Republic
12,101	25	4,929	67	Germany
190	149	150	148	Timor-Leste
1,081	112	878	116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602	127	2,000	87	Liberia
1,105	109	629	123	Latvia
123,581	4	92,099	10	Russian Federation
328	140	60	155	Lebanon
334	139	2,000	87	Lesotho

국가	국토면적 Land area		농업면적 Agricultural area		
	1000ha	순위	1000ha	순위	국토면적 대비 비율 %
레위니옹	250	174	49	173	19.60
루마니아	22,998	81	14,513	61	63.11
룩셈부르크	259	173	129	165	49.81
르완다	2,467	147	1,940	124	78.64
리비아	175,954	16	15,585	56	8.86
리투아니아	6,268	123	2,837	110	45.26
리히텐슈타인	16	214	7	204	43.75
마다가스카르	58,154	43	40,843	26	70.23
마르티니크	106	179	30	178	28.30
마셜제도 공화국	18	212	14	189	77.78
마요트	37	200	20	185	53.48
마케도니아	2,543	146	1,242	138	48.84
말라위	9,408	109	4,590	93	48.79
말레이시아	32,855	64	7,870	78	23.95
말리	122,019	23	39,479	28	32.35
맨섬	57	189	27	180	46.49
멕시코	194,395	14	107,500	12	55.30
모라셔스	203	175	113	166	55.67
모로코	44,630	54	30,395	36	68.10
모리타니아	103,070	27	39,762	27	38.58
모잠비크	78,638	34	48,630	18	61.84
몬세라트산	10	217	3	210	30.00
몰도바	3,287	136	2,518	114	76.60
몰디브	30	204	14	189	46.67
몰타	32	203	10	195	31.25
몽골	156,650	18	130,460	10	83.28
미국	916,192	3	414,778	3	45.27
미얀마	65,755	39	11,268	66	17.14
미크로네시아	70	186	31	177	44.29
바누아투	1,219	158	147	163	12.06
바레인	71	185	10	195	14.08
바베이도스	43	196	19	188	44.19
바하마	1,001	163	14	189	1.40
방글라데시	13,017	95	9,011	74	69.22
버뮤다	5	219	1	217	20.00
버진아일랜드(미국령)	35	201	6	205	17.14
베냉	11,062	100	3,567	100	32.25

재배면적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초지면적 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		Country
1000ha	순위	1000ha	순위	
38	165	11	169	Réunion
9,828	30	4,685	69	Romania
62	162	67	154	Luxembourg
1,475	97	465	130	Rwanda
2,085	87	13,500	45	Libyan Arab Jamahiriya
1,946	91	891	115	Lithuania
4	201	3	186	Liechtenstein
3,550	65	37,293	21	Madagascar
19	174	11	169	Martinique
10	184	4	180	Marshall Islands
20	173	-	204	Mayotte
612	125	630	122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740	75	1,850	92	Malawi
7,585	38	285	140	Malaysia
4,840	51	34,639	22	Mali
8	191	19	167	Isle of Man
27,600	12	79,900	12	Mexico
106	155	7	176	Mauritius
9,395	31	21,000	33	Morocco
512	132	39,250	17	Mauritania
4,630	54	44,000	15	Mozambique
2	208	1	198	Montserrat
2,146	86	372	135	Moldova
13	180	1	198	Maldives
10	184	-	204	Malta
1,160	108	129,300	7	Mongolia
177,178	1	237,600	3	United States of America
10,956	26	312	137	Myanmar
23	170	8	172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105	156	42	160	Vanuatu
6	194	4	180	Bahrain
17	178	2	190	Barbados
12	181	2	190	Bahamas
8,411	33	600	124	Bangladesh
1	212	-	204	Bermuda
3	205	3	186	US Virgin Islands
3,017	73	550	125	Benin

국가	국토면적 Land area		농업면적 Agricultural area		
	1000ha	순위	1000ha	순위	국토면적 대비 비율 %
베네수엘라	88,205	32	21,690	46	24.59
베트남	31,007	66	9,592	72	30.93
벨기에	3,023	138	1,386	137	45.85
벨로루시	20,748	83	8,860	75	42.70
벨리즈	2,281	149	152	161	6.6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5,120	127	2,147	121	41.93
보츠와나	56,673	46	25,980	42	45.84
볼리비아	108,438	26	37,768	32	34.83
부룬디	2,568	145	2,326	117	90.58
부르키나파소	27,360	74	10,900	67	39.84
부탄	4,700	131	592	146	12.60
북마리아나제도	46	192	3	210	6.52
북한	12,041	98	3,050	105	25.33
불가리아	10,864	102	5,265	86	48.46
브라질	845,942	5	263,600	4	31.16
브루나이	527	168	25	182	4.74
사모아	283	172	93	167	32.86
사우디아라비아	214,969	13	173,710	8	80.81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26,600	76	5,005	89	18.82
산마리노	6	218	1	217	16.67
상투메프린시페	96	180	57	172	59.38
세네갈	19,253	86	8,248	77	42.84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0,200	104	5,590	83	54.80
세이셸	46	192	6	205	13.04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39	198	10	195	25.64
세인트피에르미켈론	23	209	3	210	13.04
세인트헬레나	39	198	12	194	30.77
세인트루시아	61	188	20	185	32.79
세인트키츠네비스	26	205	10	195	38.46
소말리아	62,734	41	44,376	21	70.74
솔로몬제도	2,799	142	85	169	3.04
수단	237,600	11	136,837	9	57.59
수리남	15,600	91	91	168	0.58
스리랑카	6,463	122	2,356	115	36.45
스와질란드	1,720	156	1,392	135	80.93
스웨덴	41,033	58	3,219	104	7.84
스위스	4,000	134	1,525	134	38.13

재배면적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초지면적 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		Country
1000ha	순위	1000ha	순위	
3,450	67	18,240	37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8,950	32	642	121	Viet Nam
867	118	519	127	Belgium
5,571	46	3,289	75	Belarus
102	158	50	157	Belize
1,097	111	1,050	110	Bosnia and Herzegovina
380	137	25,600	28	Botswana
3,256	72	34,512	23	Bolivia
1,336	104	990	112	Burundi
4,900	49	6,000	61	Burkina Faso
177	150	415	134	Bhutan
2	211	1	197	Northern Mariana Islands
3,000	74	50	157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3,374	69	1,891	91	Bulgaria
66,600	5	197,000	4	Brazil
19	174	6	178	Brunei Darussalam
90	159	3	186	Samoa
3,710	62	170,000	6	Saudi Arabia
5	199	5,000	64	Western Sahara
1	212	-	204	San Marino
56	163	1	198	Sao Tome and Principe
2,598	78	5,650	62	Senegal
3,822	60	1,768	95	Serbia and Montenegro
6	194	-	204	Seychelles
8	188	2	190	Saint Vincent and Grenadines
3	205	-	204	Saint Pierre and Miquelon
4	201	8	172	Saint Helena
18	176	2	190	Saint Lucia
8	188	2	190	Saint Kitts and Nevis
1,376	102	43,000	16	Somalia
77	160	8	172	Solomon Islands
19,657	16	117,180	8	Sudan
70	161	21	164	Suriname
1,916	92	440	132	Sri Lanka
192	148	1,200	105	Swaziland
2,706	76	513	128	Sweden
434	135	1,091	107	Switzerland

국가	국토면적 Land area		농업면적 Agricultural area		국토면적 대비 비율 %
	1000ha	순위	1000ha	순위	
스페인	49,919	50	29,030	38	58.15
슬로바키아	4,810	130	1,941	123	40.35
슬로베니아	2,014	152	508	150	25.22
시리아	18,378	88	14,008	62	76.22
시에라리온	7,162	119	2,880	109	40.21
싱가포르	69	187	1	221	1.16
아랍에미리트	8,360	114	560	147	6.70
아루바	18	212	2	215	11.11
아르메니아	2,820	139	1,390	136	49.29
아르헨티나	273,669	8	129,355	11	47.27
아메리칸사모아	20	210	5	209	25.00
아이슬란드	10,025	106	2,281	118	22.75
아이티	2,756	143	1,590	133	57.69
아일랜드	6,889	121	4,227	96	61.36
아제르바이잔	8,266	115	4,759	90	57.57
아프가니스탄	65,209	40	38,048	31	58.35
안도라	47	191	26	181	55.32
알바니아	2,740	144	1,123	140	40.99
알제리	238,174	10	41,150	25	17.28
앙골라	124,670	22	57,590	16	46.19
앤티가바부다	44	195	14	189	31.82
에리트레아	10,100	105	7,607	79	75.32
에스토니아	4,239	133	834	144	19.67
에콰도르	27,684	73	7,552	80	27.28
에티오피아	100,000	28	33,922	34	33.92
엘살바도르	2,072	151	1,704	130	82.24
영국	24,193	79	16,956	53	70.09
영국령버진제도	15	215	9	199	60.00
예멘	52,797	48	17,715	50	33.55
오만	30,950	67	1,805	127	5.83
오스트리아	8,245	116	3,263	103	39.58
온두라스	11,189	99	2,936	107	26.24
요르단	8,824	112	1,012	143	11.47
우간다	19,710	84	12,712	63	64.50
우루과이	17,502	90	14,955	58	85.45
우즈베키스탄	42,540	56	27,890	39	65.56
우크라이나	57,938	44	41,304	23	71.29

재배면적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초지면적 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		Country
1000ha	순위	1000ha	순위	
18,630	18	10,400	53	Spain
1,417	100	524	126	Slovakia
203	147	305	138	Slovenia
5,742	44	8,266	58	Syrian Arab Republic
680	123	2,200	85	Sierra Leone
1	218	-	204	Singapore
255	144	305	138	United Arab Emirates
2	208	-	204	Aruba
555	128	835	117	Armenia
29,505	11	99,850	9	Argentina
5	199	-	204	American Samoa
7	192	2,274	83	Iceland
1,100	110	490	129	Haiti
1,217	107	3,010	79	Ireland
2,065	88	2,694	80	Azerbaijan
8,048	35	30,000	26	Afghanistan
1	212	25	162	Andorra
700	121	423	133	Albania
8,300	34	32,850	24	Algeria
3,590	64	54,000	13	Angola
10	184	4	180	Antigua and Barbuda
640	124	6,967	60	Eritrea
603	126	231	143	Estonia
2,562	79	4,990	66	Ecuador
13,922	23	20,000	35	Ethiopia
910	116	794	119	El Salvador
5,776	43	11,180	50	United Kingdom
4	201	5	179	British Virgin Islands
1,650	96	16,065	39	Yemen
105	156	1,700	97	Oman
1,453	98	1,810	93	Austria
1,428	99	1,508	100	Honduras
270	143	742	120	Jordan
7,600	37	5,112	63	Uganda
1,412	101	13,543	44	Uruguay
5,040	48	22,850	31	Uzbekistan
33,353	10	7,951	59	Ukraine

국가	국토면적 Land area		농업면적 Agricultural area		
	1000ha	순위	1000ha	순위	국토면적 대비 비율 %
월리스후트나	14	216	6	205	42.86
이라크	43,737	55	10,010	70	22.89
이란	162,855	17	47,631	20	29.25
이스라엘	2,164	150	517	148	23.89
이집트	99,545	29	3,520	101	3.54
이탈리아	29,411	72	14,694	60	49.96
인도	297,319	7	180,180	7	60.60
인도네시아	181,157	15	47,800	19	26.39
일본	36,450	61	4,692	91	12.87
자메이카	1,083	161	513	149	47.37
잠비아	74,339	38	25,739	43	34.62
적도기니	2,805	141	324	155	11.55
중국	932,749	2	556,328	1	59.6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2,300	42	5,220	87	8.38
지부티	2,318	148	1,701	131	73.38
짐바브웨	38,685	60	15,610	55	40.35
차드	125,920	21	49,230	17	39.10
채널제도	19	211	8	203	40.00
체코	7,726	117	4,259	94	55.13
칠레	74,880	37	15,245	57	20.36
카메룬	46,540	52	9,160	73	19.68
카보베르데	403	170	74	170	18.36
카자흐스탄	269,970	9	207,598	6	76.90
카타르	1,100	160	71	171	6.45
감보디아	17,652	89	5,356	84	30.34
캐나다	909,351	4	67,500	15	7.42
케냐	56,914	45	27,021	41	47.48
케이맨제도	26	205	3	210	11.54
코모로	186	176	148	162	79.53
코스타리카	5,106	128	2,895	108	56.70
코트디부아르공화국	31,800	65	20,300	48	63.84
콜롬비아	110,950	25	42,557	22	38.36
콩고	34,150	63	10,545	69	30.88
콩고민주공화국	226,705	12	22,800	45	10.06
쿠바	10,982	101	6,597	81	60.07
쿠웨이트	1,782	155	154	160	8.64
룩아일랜드	24	208	6	205	25.00

재배면적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초지면적 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		Country
1000ha	순위	1000ha	순위	
6	194	-	204	Wallis and Futuna Islands
6,010	42	4,000	73	Iraq
18,107	19	29,524	27	Iran, Islamic Republic of
392	136	125	151	Israel
3,520	66	-	204	Egypt
10,283	29	4,411	72	Italy
169,650	2	10,530	52	India
36,600	8	11,200	49	Indonesia
4,692	53	-	204	Japan
284	142	229	144	Jamaica
5,289	47	20,450	34	Zambia
220	146	104	153	Equatorial Guinea
156,327	3	400,001	1	China
2,020	90	3,200	76	Central African Republic
1	212	1,700	97	Djibouti
3,350	70	12,260	48	Zimbabwe
4,230	58	45,000	14	Chad
4	204	4	185	Channel Islands
3,285	71	974	114	Czech Republic
2,315	82	12,930	47	Chile
7,160	39	2,000	87	Cameroon
49	164	25	162	Cape Verde
22,500	14	185,098	5	Kazakhstan
21	171	50	157	Qatar
3,856	59	1,500	101	Cambodia
52,110	6	15,390	40	Canada
5,721	45	21,300	32	Kenya
1	212	2	190	Cayman Islands
133	152	15	168	Comoros
555	128	2,340	82	Costa Rica
7,100	40	13,200	46	Côte d'Ivoire
3,613	63	38,944	19	Colombia
545	131	10,000	54	Congo
7,800	36	15,000	41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4,338	55	2,259	84	Cuba
18	176	136	150	Kuwait
6	194	-	204	Cook Islands

국가	국토면적 Land area		농업면적 Agricultural area		
	1000ha	순위	1000ha	순위	국토면적 대비 비율 %
크로아티아	5,592	125	2,695	111	48.19
키르기즈스탄	19,180	87	10,745	68	56.02
키리바시	81	181	37	176	45.68
키프로스	924	165	165	159	17.86
타지키스탄	13,996	94	4,255	95	30.40
탄자니아	88,580	31	34,350	33	38.78
태국	51,089	49	18,600	49	36.41
터크스앤크아이코스제도	43	196	1	217	2.33
터키	76,963	36	41,223	24	53.56
토고	5,439	126	3,630	99	66.74
통가	72	184	30	178	41.67
투르크메니스탄	46,993	51	33,065	35	70.36
투발루	3	221	2	215	66.67
튀니지	15,536	92	9,769	71	62.88
트리니다드토바고	513	169	133	164	25.93
파나마	7,443	118	2,230	120	29.96
파라과이	39,730	59	24,258	44	61.06
파키스탄	77,088	35	27,070	40	35.12
파푸아뉴기니	45,286	53	1,065	141	2.35
팔라우	46	192	9	199	19.57
팔레스타인유엔인도주지정국	602	167	372	153	61.79
페로제도	140	178	3	210	2.14
페루	128,000	19	21,310	47	16.65
포르투갈	9,150	110	3,680	98	40.22
포클랜드제도	1,217	159	1,130	139	92.85
폴란드	30,633	68	15,906	54	51.92
푸에르토리코	887	166	223	158	25.14
프랑스	55,010	47	29,569	37	53.75
프랑스령기아나	8,815	113	23	183	0.26
프랑스령폴리네시아	366	171	45	174	12.30
피지	1,827	154	460	151	25.18
핀란드	30,459	69	2,266	119	7.44
필리핀	29,817	71	12,200	65	40.92
한국	9,873	107	1,881	126	19.05
헝가리	8,961	111	5,864	82	65.44
호주	768,230	6	445,149	2	57.94

자료 : <http://faostat.fao.org/site/377/default.aspx#ancor>

재배면적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초지면적 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		Country
1000ha	순위	1000ha	순위	
1,226	106	1,469	103	Croatia
1,356	103	9,389	56	Kyrgyzstan
37	166	-	204	Kiribati
161	151	4	180	Cyprus
1,057	114	3,198	77	Tajikistan
10,350	28	24,000	29	Tanzania, United Republic of
17,800	20	800	118	Thailand
1	212	-	204	Turks and Caicos Islands
26,606	13	14,617	42	Turkey
2,630	77	1,000	111	Togo
26	167	4	180	Tonga
2,365	81	30,700	25	Turkmenistan
2	208	-	204	Tuvalu
4,884	50	4,885	68	Tunisia
122	153	11	169	Trinidad and Tobago
695	122	1,535	99	Panama
4,298	57	19,960	36	Paraguay
22,070	15	5,000	64	Pakistan
890	117	175	145	Papua New Guinea
6	194	3	186	Palau
222	145	150	148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3	205	-	204	Faroe Islands
4,310	56	17,000	38	Peru
1,911	93	1,769	94	Portugal
-	219	1,130	106	Falkland Islands
12,519	24	3,387	74	Poland
113	154	110	152	Puerto Rico
19,635	17	9,934	55	France
16	179	7	176	French Guiana
25	168	20	166	French Polynesia
285	141	175	145	Fiji
2,240	84	26	161	Finland
10,700	27	1,500	101	Philippines
1,824	95	57	156	Korea, Republic of
4,807	52	1,057	109	Hungary
49,742	7	395,407	2	Australia

M45-101 세계농업 제101호 (2009. 1)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9년 1월

발 행 2009년 1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